

예수 따라 가며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3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1) (4:12-22)	4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2) (4:18-22)	6
여덟 가지 행복 (1):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5:3)	10
여덟 가지 행복 (2): 애통하는 자의 복 (5:4)	16
여덟 가지 행복 (3): 온유한 자의 복 (5:5)	22
여덟 가지 행복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5:6)	28
여덟 가지 행복 (5):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5:7)	34
여덟 가지 행복 (6):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5:8)	41
여덟 가지 행복 (7): 화평케 하는 자의 복 (5:9)	48
여덟 가지 행복 (8):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5:10-12)	54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5:13)	61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5:14-16)	64
“너희는 기도할 때” (6:5-8)	67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9-13)	73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둥시다. (6:19-24)	86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6:24-34)	94
비판하지 마십시오. (7:1-6)	101
기도하십시오. (7:7-11)	111
남을 대접하십시오. (7:12)	119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13-14)	127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7:15)	133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7:16-23)	140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7:24-29)	145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8:5-13)	151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1-8)	160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9:9-13)	170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18-26)	176
결론	184

서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요10:3-5). 비록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이라 할지라도 제 자신을 부인하고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마16:24; 막8:34; 눅9:23). 이 세상의 넓은 길보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길 원합니다. 걸되 보이는 데로 걸기보다 믿음으로 걸길 원합니다(고후5:7). 그리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한 길을 끝까지 걸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우왕좌왕하며 머뭇머뭇 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요14:6)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히12:2) 귀를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길 원합니다(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린바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뭇취서리다 나의 가고서 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 2013년도 표어가 “예수 따라가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표어를 정하고 그 한 해 동안 성경 마태복음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들 중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예수 따라 가며”란 제목아래 책을 편집해 보았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예수 따라 가고자 조금이나마 발버둥치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2018년 6월, 승리 목양실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1)

[마태복음 4장 18-22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따라가기”라는 글을 우리 마음 판에 적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4장 18-22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인(18절)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Jesus' calling)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2) 둘째는, 예수님의 약속(Jesus' promise)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을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더 높은 부르심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들로서(18절) 그저 갈릴리 바다(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19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 높은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20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22절). 이들은 그물이나 배나 심지어 아버지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버려 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2)

[마태복음 4장 18-22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 ...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4:19).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18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19절).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직업이 어부였던(18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19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높은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직업보다 더 높은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영혼,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즉시 우리가 버려 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20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도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22절).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1)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은 음식에 맛을 내며 또한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맛을 내며 또한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4-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16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므로 이 세상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착한 행실을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착한 행실이란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b) 착한 행실이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입니다(22절).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23-24절).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43-4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46절).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들도 다 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47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c) 착한 행실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7-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는 간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27절).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28절).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인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언행일치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1):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잡 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최근 ‘행복’을 주제로 대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꼽게 한 결과 ‘감사와 긍정적인 마인드’가 29.1%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건강(16.6%)’, 3위는 ‘재산, 경제력(15.0%)’이 각각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을 꼽은 응답별로 행복점수를 매겼을 때는 100점 만점에 ‘종교생활’이 75.3점으로 1등을 차지했고 그 다음 2위는 ‘사랑하는 사람(67.7점)’, 3위는 ‘감사(66.5점)’인 반면에 ‘재산’을 꼽은 응답군은 50.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롬4:6-8)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12절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그의 제자들과 모인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마5:1-2) 교훈인 산상보훈(5-7장) 중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5:1-12). 오늘 저는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모인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첫 번째 복은 “천국”(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 결과 약 80%정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갤럽이 한국 국민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물었더니 비기독교인들의 경우 약 33.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고 기독교인의 경우는 41.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58.9%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저자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쓰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쓴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쓴 것입니다(Wood).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하면 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는 “천국”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입니다(요6:29).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복인 천국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이란 곳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사망도 없습니다(계21:4). 또한 그 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을 뿐만 아니라(22:3)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습니다(5절). 이 천국을 가리켜 성경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21:1)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고전13:12).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12절). 이렇게 천국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꼭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11:20). 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21).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2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1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장차 들어갈 곳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만 생각하며 또한 미래지향 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Where?”(어디?) 또는 “When?”(언젠?)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기보다 “Who?”(누구?)란 관점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Who?”(누구?)란 관점에서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롬5:5). 그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습니다. 즉, 우리 안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천국(하나님의 나라)이란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지켜 행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화를 이루어 나가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놀라운 첫 번째 복인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53).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누구인가 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그 뜻은 영적으로 궁핍함을 가리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인격적인 골수와 같은 극히 내부적인 영혼 부분에서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이란 말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이란 한 3 가지를 말합니다(박윤선):

(1)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자기의 할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 밖에도와 줄 자가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사61:1, 시69:29, 70:5, 74:21, 86:1-6; 습3:12).

성경 시편 70편 5절을 보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며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갈급하게 간구하는 시편 기자는 자기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편 기자와 같은 자가 영적으로 궁핍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2)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의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시37:14, 86:14).

성경 시편 37편 14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영적으로 궁핍한 자는 악인들의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자입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이 영적으로 궁핍한 자를 핍박합니까? 그 이유는 그가 정직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3)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죄를 인하여 상심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사66:2, 시34:6, 18, 51:17).

성경 시편 34편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성경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이다.” 영적으로 궁핍한 자는 마음이 상한자요 상한 심령 속에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자기의 의가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경손을 이룸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발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MacArthur).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절실히 필요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급자족하였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자기의 의가 없는 줄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하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얻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는 얻는 자기 의입니다. 그러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의로는 결국 바리새인 자신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그리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10-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중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였는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한 것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1-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13절). 이 세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리야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자기의 의(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이 세리, 예수님께서서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세리)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14절).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합2:4; 롬1:17).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롬3:23).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의인은 천국(영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영생,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2): 애통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4절]

여러분은 슬프고 가슴이 아플 때 무엇이 또는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로버트 스트랜드의 “위로의 영성”이란 책을 보면 머리말에서 헨리 나우웬은 ‘돌봄(care of soul)은 같이 있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스트랜드). 우리 주위에 이러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면서 울 때에 함께 우는 위로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위로 자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고 외로울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위로 받기를 좀 거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위로 자가 되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 1-12절 말씀을 읽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팔복 중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궁핍한 자, 즉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이요 그들이 받는 복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란 복을 우리가 장소와 시간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란 우리가 죽은 후 장차 들어갈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도 개인과 그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또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천국의 복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한 3가지로 배웠습니다: (1)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자기의 할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 밖에 도와 줄 자가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2)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의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3) 영적 궁핍을 느끼는 자들은 죄를 인하여 상심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묵상해야 할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시편 34편 18절과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34:18),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51:17). 우리가 이 두 구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두 번째 행복한 애통하는 자의 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마5:4).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실 때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애통(통곡)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왜 여러분은 그 때 그리도 통곡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이란 곳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통곡이 벽인지 아십니까?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에게는 성지 중의 성지라고 합니다. 그 벽의 정식 이름은 “서쪽의 벽”(Western Wall)인데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연이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로마 병들에 의해 두 차례나 불탄 후 남은 벽이 서쪽 벽이었고 로마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추방해 버렸으므로 유대인들은 로마, 북아프리카, 발리로니아 등지에 노예로 팔려가서 자그마치 1,870년 동안이나 별뿔이 흩어져 남의 나라를 전전하는 방랑의 민족이 되었습니다(디아스포라). 그 후 예루살렘이 비잔틴의 지배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하나만 들어줄 것을 간청했는데 그 간청이란 솔로몬 성전의 유일한 유적인 ‘서쪽의 벽’에 모여 1년에 한번만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청이 결국 받아들여져 전 세계 유대인들은 매년 성전이 파괴된 8월 ‘서쪽의 벽’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서쪽의 벽은 원래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장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운 장소였기에 서쪽의 벽에 매년 모이는 예루살렘 예배가 통곡의 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통곡할 이유는 그 자리에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큰 두개의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통곡할 이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통곡의 벽’이 있는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에 귀속되었는데 무슬림들은 이곳에서 매년 열리는 유대인 예배마저 금지시켜 48년부터 67년까지 19년 동안 유대인들은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7년 ‘6일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군은 특수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한 멧힌 ‘통곡의 벽’부터 점령해 버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점령한 ‘시나이 반도’ ‘가자지구’ ‘웨스트 뱅크’는 다시 내놓으면서도 동예루살렘만은 죽어도 양보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곳에 ‘통곡의 벽’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독립 이전까지 서로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이 인사의 의미는 “내년에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만나 뵙기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통곡의 벽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을 때 에스라 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스3:8)의 기초를 놓을 때(1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12절). 다른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는데(12절)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남북한을 갈라놓은 38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통일되면 6.25. 전쟁을 겪으신 나이 많은 분들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겪어 보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를 것이다.’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 볼 때 대성통곡한 적이 딱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저는 통곡하면서 사람이 숨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크게 통곡을 했는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때 제가 그리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는 처음이지 마지막으로 안아본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저는 첫째 아기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가슴 아파했던 이유는 그 아기의 죽음이 제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총성된 군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사 다윗에게 하신 말씀 중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 이다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아기는 7일 만에 죽습니다(18절). 그래서 저는 저의 죄의 결과로 인해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었다고 생각되어 크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박운선). 이러한 통회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애통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과 다릅니다(10절하). 세상적인 애통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였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편지로 근심케 한 것을 기뻐한 이유는 그들의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함(애통함)을 주신 의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9절하). 새 찬송가 486장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가사의 영문은 이렇습니다: “My soul in sad exile was out on life’s sea, So burdened with sin and distressed, Till I heard a sweet voice saying ‘Make me your choice’; And I entered the ‘Heaven of Rest.’ 이 영문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은 인생의 바다에 슬픈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나를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 주세요’란 달콤한 음성을 내가 듣기 전까지. 그리고 나는 천국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영문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무거움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 우리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겸손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나서도 우리 마음에 무거움과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여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수 없이 죄를 가볍게 여기므로 마음에 무거움과 괴로움이 없이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한 사람과 만나 한 4시간 정도 대화를 한 후 그 다음 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제 개인 홈페이지에 써서 올렸습니다: “밑바닥 인생, 힘들고 지친 인생, 눈물이 많은 인생, 삶의 의욕을 상실한 인생, 앞날이 보이지 않는 인생,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 살 소망이 없는 인생, 주님께 돌아오길 ….”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사람은 살 소망을 잃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위기는 기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 사랑하는 영혼을 생각할 때 시편 32편 4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 자신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자기를 누르셨다는 이 말씀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한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영혼을 누르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누르심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므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은 바로 “위로”(comforted)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란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바로 죄 사함과 구원의 위로입니다(MacArthur). 성경 이사야 40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은 위로요 그 위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3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갈2:16)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사단의 나라)과 이 세상의 불의를 위하여 살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거듭 행하는 죄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는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고후7:6).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찔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토설(자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며 회개케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잠24:16).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습시다. 그 메시지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입니다(마5:4).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새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1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2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3절) 힘이 없고 연약하나 앞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후렴)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덟 가지 행복 (3): 온유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국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이 속담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사촌이 땅을 사면 진정 배가 아프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속담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지 왜 배 아파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이 속담에 대하여 교훈될 만한 글이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 “행복은 그냥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그 곳에서 자족함을 느끼는 행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 샘을 낼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다. 사촌이 땅을 사도 마찬가지다. 필요하니까 땅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땅에 농사라도 지어서 이웃과 나눠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한 얼마나 기쁘는가? 그 땅을 함께 일구어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다면 마음은 더 부자가 되고 행복해질 것이다(인터넷).”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행복은 바로 “땅”(the earth)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축구나 농구나 야구도 아니고 바로 미식축구(football)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식축구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 미식축구 결승전인 Super Bowl Sunday는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Thanksgiving(추수감사절)의 바로 뒤를 잇는 음식소비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함께 TV로 경기를 시청한다는 말입니다. 2011년 미식축구 결승전은 미국 TV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는데 약 1억 명 이상이 경기를 시청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도 매년 미식축구 결승전을 시청하고 있는데 운동을 별로

좋아 하지도 않는데 만일 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규칙들이 너무나 많이 골치 아파보일 수도 있기에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간단합니다. 그 운동은 땅 따먹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네티즌은 미식축구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땅따먹기를 하는 게임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 스포츠가 미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하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개척 국가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척이라는 이념과 스포츠가 연관되면서 미식축구가 인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인터넷). 흥미로운 관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미국이 역사적으로 개척 국가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동부에 도착한 후, 나중에는 원주민 인디언을 몰아내고 미개척지인 서부까지 개척해 나아가 청교도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운 이 미국,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2008년 10월에 크리스천 포스트가 전국 1,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의 80%가 그리고 미국인 61%가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라고 응답 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 하나님께 축복 받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미국 땅을 생각할 때 성경 구약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또한 종종 그렇게 설교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출3:8; 민14:7), 젖과 꿀이 흐르는 땅(13:5; 민13:27; 14:8), 기름진 땅(출3:8)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 8장 7절부터 보면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이 미국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소산물이 풍성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면 먹어서 배부를 것이며(10, 12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12절) 또한 그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며 그들의 은금이 증식되어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1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이스라엘 조상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민14:23, 신31:4)이요 이스라엘에게 준 땅(민20:24, 삼상13:19, 대상21:4)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가나안 땅을 가리켜 하나님 여호와와 주시는 땅(신3:20)이요 여호와와

땅(호9:3)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신명기 2장 12절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땅인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가나안 땅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8-9절을 보면 그 땅을 가리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8절) 또는 약속의 땅(9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는데(9절)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이 성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16 절), 즉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차 들어갈 하늘의 성, 즉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온유한 자”하면 구약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야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곳 골짜기에 장사됩니다(신34:5-6). 왜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 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8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하고(10절)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11절).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딱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를 흥미롭게 해석한 글이 있어 나눕니다. 그 글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하면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로 하여금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므로 유대인들이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교훈은 결코 율법을 행함으로는 진정한 가나안 땅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십계명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는 곧 율법의 대명사이다. 모세 즉 율법은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는 하지만 율법으로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천국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인터넷). 흥미로운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상징적으로 율법으로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좋은 땅이요 기름진 땅 등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지만(출3:8; 민13:7; 14:7-8; 신8:8-9) 또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죄로 물든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레18:15, 민35:34; 시106:34, 미2:10).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온전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전한 약속의 땅은 오직 가나안 땅이 가리키고 있는 천국입니다. 이 천국 땅을 예수님께서서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이 “온유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오늘 본문 외에 딱 2번 더 사용했습니다(11:29, 21:5). 그 두 번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11:28)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졌음을 말하며 그 낮아진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정돼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고정된 예수님의 낮은 마음은 이 땅에 오시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낮은 모습과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Kittel).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에서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또 사용한 곳은 바로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여기서 “네 왕”이란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에 익히 말씀을 들어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케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관한 성경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시작도 겸손이요 이 땅에서의 끝도 겸손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빌립보서 2장 5-8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또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요 이 온유한 자가 받는 행복은 바로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자녀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실제로 성경은

천국 땅을 가리켜 “평화로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단8:9). 비록 이 세상에는 전쟁과 싸움 뿐 진정한 평화가 없지만 다가오는 세상인 천국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합니다. 또한 성경은 천국을 가리켜 “좋은 땅”(왕상14:15)이요 “거룩한 땅”(슥2:12)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쁜 땅이요 더럽고 추한 땅이요 사단의 땅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좋은 땅이요 거룩한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인 천국을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시37:11) 예수님께서도(마5:5)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6절]

여러분은 지금 만족감을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측정을 위해 미국의 에드 디너 박사가 개발한 퀴즈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퀴즈에는 5개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답하실 때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답 1은 “확실히 아니다”, 답 2는 “아니다”, 답 3은 “약간 아니다”, 답 4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답 5는 “약간 그렇다”, 답 6은 “그렇다” 그리고 답 7은 “확실히 그렇다”입니다. 이렇게 1에서 7까지 각각 다섯 개 항목의 질문을 답하신 후 그 숫자를 다 합해서 31-35점이 나오면 “극도로 만족”, 26-30점이 나오면 “매우 만족”, 21-25점이 나오면 “약간 만족”, 20점이 나오면 “중간”, 15-19점이 나오면 “약간 불만”, 10-14점이 나오면 “매우 불만” 그리고 5-9점이 나오면 “극도로 불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다섯 항목의 질문을 던집니다:

- (1) 전반적으로 내 인생은 내 이상에 가깝다. 1 2 3 4 5 6 7
- (2) 내 인생의 여건은 매우 좋다 1 2 3 4 5 6 7
- (3)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미 얻었다 1 2 3 4 5 6 7
- (4)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바꾸고 싶은 게 거의 없다 1 2 3 4 5 6 7
- (5) 앞으로 삶의 틀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다 1 2 3 4 5 6 7

제가 이 행복도 측정을 위한 5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고 1에서 7까지 점수를 매긴 후 다섯 항목의 모든 점수를 합해 보니까 3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이면 뭔가 보았더니 “매우 만족”(26-30)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만족”(31-35)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행복도 측정을 위한 5가지 질문의 퀴즈가 진정으로 제 자신의 행복도를 다 측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섯 가지 질문의 답이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인 “전반적으로 내 인생은 내 이상에 가깝다”고 할 때 저에게 있어서 그 “이상”은 예수님이요 두 번째 질문인 “내 인생의 여건이 매우 좋다”와 세 번째 질문이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미 얻었다”고 할 때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다 받았기에 제 여건은 매우 좋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인터넷).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행복은 바로 ‘배부름’입니다. 여기서 ‘배부름’이란 달리 말한다면 ‘만족함’(be content)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행복은 바로 만족(contentment or satisfaction)입니다. 미국(Harvard Mental Health)에서 실시된 정신건강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2008년 18세에서 85세 사이의 성인 3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응답 조사에서 연구진들은 응답자들의 나이, 대인관계, 건강, 수입 등에 대한 인생의 만족도를 1에서 10까지 응답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인터뷰 전날 느낀 행복, 슬픔, 분노, 스트레스, 근심과 같은 감정적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연구진들은 중년(특히 50세-53세 사이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분노나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50세가 되면 어떠한 것에 대하여 근심을 덜하게 되고 행복감과 기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인생의 만족도는 18세에서 50세까지 감소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82세에서 85세의 사람들은 18세와 21세 사이의 사람들보다 인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50세에서 53세까지가 인생 만족도의 전환점이 되는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는 못하였지만 사람들은 중년이 되면서 감성지능이 높아지고 큰일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등 부정적인 것들보다 긍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 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져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사 결과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욕심(소유욕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바로 구약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그리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까? 마음에 불만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족이 있었습니까? 성경 민수기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는 불만족이요, 그들의 마음에 불만족이 있었던 원인은 바로 탐욕(greedy desires)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했기에(시106:14) 하나님과 모세에게 수시로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것이기에 결코 행복을 느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 수록 이 탐욕을 버리고 또 버리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이가 들만큼 들은 어른들 중에도 아직도 마음에 이 탐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네 번째 행복은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한 마디로 ‘만족할 것이요’라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선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상반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만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의(righteousness)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의”란 단어는 구약에 500번 그리고 신약에는 225번 나옵니다(Achtemeier). 그리고 이 “의”란 단어는 크게 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Swanson): (1) 첫 번째 의미는, “(정)의”(righteousness), “옳은 것”(what is right), “공의”(justice).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2) 두 번째 의미는, “누군가와 옳은 관계에 두다/있다.”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3) 세 번째 의미는, 종교에서 요구하는 법이나 의식을 행하는 것.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첫 번째 의미로서 “정의” 또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는 바로 “자기 의”(self-righteousness)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므로 이 율법의 의인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 의입니다. 여기서 “자기 의”란 자기의 종교적인 행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인터넷).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였던 종교적인 행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누가복음 18장 9-14절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듯이 바리새인이 의지하였던 자신의 종교적인 행실은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12절).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였는데(1절) 그 의 중 하나는 구제함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듯이 구제하였습니다(2절). 결코 그들은 은밀하게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5절). 그들은 금식할 때에도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16절). 이렇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므로 자기가 의롭다고 굳게 믿었습니다(눅18:9).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바리새인들이 믿고 추구했던 “자기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선을) 행하므로 얻는 “자기 의”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누구의 의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1-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란 구약 성경이 증거 하는 것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의입니다(김창세). 여기서 “속량”이란 예수님 당시 노예를 살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였는데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 또는 ‘대가를 치렀다’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므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셨습니다(24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25절)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행13:38).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27절). 그 이유는 우리가 행한 어떠한 근거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덧 입혀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요 그가 누릴 복은 바로 배부를(만족할) 것입니다(마5:6).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란 찬송이 생각납니다: (1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로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4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잡네.” 저는 이 찬송가를 생각할 때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요6:27).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말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치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 사함(속량)을 얻었습니다(골1:1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아(행10:43)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5):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덟 가지 행복 중에 네 번째 행복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복이란 바로 ‘배부름’ 또는 ‘만족함’입니다. 우리가 그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지 않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의”라는 단어의 3가지 의미입니다(Swanson): (1) 첫 번째 의미는, “(정)의”(righteousness), “옳은 것”(what is right), “공의”(justice)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5장 6절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란 말씀 외에 또 다른 예는 바로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의”란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자기 의’나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 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죽으시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한 의입니다. (2) 두 번째 의미는, “누군가와 옳은 관계에 두다/있다”(be put right with, b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다 함을 받으므로 이젠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옳은 관계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 세 번째 의미는, 종교에서 요구하는 법이나 의식을 행하는 것(religious observances such as practices required by a religion).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2-4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하심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들이 힘써 지키고자 했던 율법 중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구제함에 있어서 외식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보이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리 구제하지 말고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은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바리새인들처럼 공로의식으로 의를 얻고자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5장 6절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란 말씀에 있는 “의”라는 단어가 그 본문에서 의도한 의미 외에도 2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2 가지를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십시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여덟 가지 행복 중 다섯 번째 행복인 ‘공홀히 여김을 받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홀”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헨리 나우웬이 쓴 책 “공홀”이 생각납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공홀”이란 라틴어로는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영어로는 “compassion”). 즉 공홀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는 것입니다(나우웬). 또한 저자는 “공홀”이란 히브리어로

‘라카미’(rachamim)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자궁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뒤져 보다가 '자궁의 지혜'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한 3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인터넷): (1) 자궁의 특징(지혜)은 “모든 신체 조직이 이물질(異物)을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궁은 이물질에 해당하는 수정란(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된 란)을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후에 만들어진 태반혈관이 자궁 내막 속으로 파고드는 것까지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는 까닭은 자궁내 혈관과의 소통을 이루게 해 영양을 공급하고 태반을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태반 혈관의 침투를 무한정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반 혈관이 어느 정도 파고든 다음에는 더 이상의 침투를 억제해 태반 혈관 이 모체 전신으로 도는 혈관과 소통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3) 자궁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자궁 내막은 호르몬을 분비해 열 달 동안이나 세포의 자연사를 막아 준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자궁은 임신 초기 견고하고 두꺼운 모습을 보이거나 임신 후기에는 얇고 부드럽게 돼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3 가지 자궁의 특징을 하나님의 긍휼과 비교해 보면서 한 3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마치 자궁이 “이물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십니다. (2)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므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시므로, 즉 죄를 대신 걸머지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더 이상 죄 침투를 당하지 않고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아주십니다. (3)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자궁내막이 막아 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는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도록 자궁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란 (지위, 중요도가) 낮은(하찮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이는 자를 가리킵니다(Swanson). 이것을 헨리 나우웬의 라틴어 정의로 말하자면 (지위, 중요도가) 낮은(하찮은)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받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입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켜 성경은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의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5-36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악한 우리에게도 인자하시므로 자비로우심을 베푸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우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아 주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공휼)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공휼)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 (1) 우리가 이웃에게 공휼(자비)을 베푼다는 말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실제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공휼히 여기는 자”란 헬라어 단어는 신약에서 오직 자애로운 행동이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Kittel).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공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선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비로운 사람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제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5절부터 15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고벨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고벨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고벨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31절).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은 기도와 구제라는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것은 세상에서 낮은 곳에 있는 과부와 고아 등을 돌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벨료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구제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한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행10:2). 그러므로 그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던 사람이었습니다(22절). 우리도 고벨료처럼 이러한 칭찬받은 경건의 사람이 되어 합시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참고: 딤후3:5).

(2)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자비)을 베푸다는 말은 우리가 그 이웃을 불쌍히 여겨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신 것으로서 그 비유를 드신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21절)라고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22절)고 말씀하신 후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결산하는 비유를 들으셨습니다(23절). 그 결산 비유 이야기에는 임금(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진 자와(24절) 그 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28절)가 나옵니다. 그 임금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줬는데(27절)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30절).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자기가

불쌍히 여겨 만달란트를 탕감해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로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32-33절). 여기서 “불쌍히 여김”이란 단어가 바로 “공휼히 여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마음으로 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공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해 주신 주님의 공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진 자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엡4:32).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공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공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섯 번째 행복인 ‘공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공휼히 여기므로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외워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지 못하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된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므로 구제하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선행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한 600년 전에 영국에서 살았던 줄리안은 세 가지 상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토저): (1) 회개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오 하나님! 제가 회개의 아픔으로 상처를 받게 하옵소서. 제가 범죄 한 것을 슬퍼하게 하시고, 그 슬픔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2)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하나님! 하나님을 저에게 주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저는 족하나이다.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추구한다면 저는 언제나 목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오, 하나님! 불치의 향수병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소서. 이 세상이 저의 고향이 아니오니, 어찌 이곳에 정착하리이까? 어찌 하늘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3) 긍휼의 상처입니다. 줄리안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A. W. 토저 목사님은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물질주의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통교리를 믿지만,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은 긍휼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결코 치료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그들의 상처에 동참하고 싶다”(토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상처를 주시되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시사 더욱더 천국을 그리워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부분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상처를 입혀주시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이 여겨 함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상처에 동참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6):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8절]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중에 “바.보.”가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바.보.야’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바.보.”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오래 전에 이 ‘바보’라는 은어의 의미를 듣고 ‘나는 바.보.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못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잠들었다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는 고인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고인을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바로 ‘공홀이 여기라’는 것입니다(마5:7). 공홀이 여기라는 말씀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받되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행복은 우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 배운 말씀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공홀이 여기는 마음이요 그 공홀히 여기는 마음은 가난하므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마음이요 또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번째 요구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 중심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 두 번째 요구는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주님의 요구를 생각할 때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쓴 책 제목인 “마음이 정결한 자”가 생각납니다. 그 때 책 제목을 그리 정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제가 시편 73편을 묵상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란 이 최악 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미혹하여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모든 최악 된 것들로 부터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특히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 아삽이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고백하였는데(1절) 그 자신조차도 한 3 가지로 말미암아 거의 실족할 뻔한 것을 묵상하면서 저(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게 실족케 하는 이 3 가지 요소를 경계해야겠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3 가지 요소란 (1) 악인의 형통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삽처럼 질시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것(3절), (2)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삽처럼 고통당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것(6절), 그리고 (3) 악인을 좇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삽처럼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0-11절). 시편 기자 아삽은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교만과 악인을 좇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정히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고 했습니다(13절). 다시 말하면, 그는 악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기 마음을 정히 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곤고한 삶을 한탄했습니다(14절). 그는 자신은 정결한 마음을 지키고자 의롭게 살았는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교만하고 죄를 범하는데도 형통한 것을 보고 시기하여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시편 기자 아삽처럼 거의 실족할 뻔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웬지 모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 옷에 먼지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뭐 그리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한 부분으로는 마음이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의 한 부분은 뭐 이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하는데 그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입술로는 칭찬과 존경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모르는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 중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단은 그의 간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의 목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얼마나 많이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주위에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참 깨끗한(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미혹을 받아 마음의 진실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으며 또한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은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범법행위에서 자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죄 없는 사람입니다(Friberg).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한 자”란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함 또는 정결함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Zodhiates). 여기서 영적으로 정결함 또는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발 씻기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란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온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흘려 죽으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 온 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사 우리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 하는가, (후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썸물 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장차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질적으로 우리는 불의를 행하며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복을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원하는 의는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불의를 행하는 옛 사람의 본능이 아직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전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가”하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 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 전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대속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 의는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한 3가지로만 생각해 봅시다:

- (1) 우리는 이미 목상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삶에 기본이요 근본입니다.

(2)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뒤야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 죄를 범치 아니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뒤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까? 성경 시편 119편 9절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56절).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1:22). 그렇게 하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청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3)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합니다(마5:3).

우리는 영적 궁핍을 느끼되 우리 스스로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 시편 51편 10절을 보면 이러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복음성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가 생각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2x)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에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 행복은 바로 장차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3장 6절을 보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주님)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요한삼서 1장 1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을 행하며 죄를 범하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같이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장차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데 성경은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3:12).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서는 마음의 청결한 자에게 이 행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마5:8).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목양실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 4시쯤에 깨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깬데 그 날 꿈속에서 그리운 고 김창혁 목사님을 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김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원로 목사님이 왔다 가신 후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성경구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목사님이 인용하신 성경구절이 바로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 그 때 목사님은 목사님의 형님이신 원로 목사님을 뵈고 나신 후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꿈속에서 뵈고 김창혁 목사님의 얼굴이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분의 밝고 환한 인자한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미소의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신 목사님을 제가 꿈속에서 꼭 포옹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울었는데 잠에서 깨보니 제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뵈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아 마음이 청결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뵈올 것입니다. 그 때에 먼저 잠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모여 영광중에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되는 그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 영혼들을 긍휼이 여기며 또한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하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7):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9절]

여러분, 혹시 “피스 메이커의 날”[화평하게 하는 날(Peacemaker Day)]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엔 저처럼 여러분도 피스메이커의 날이란 말을 처음 들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피스 메이커(Korean Peacemaker Ministries)란 단체에서는 2003년부터 11월 11일을 “피스 메이커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피스 메이커의 날”(Peacemaker Day)은 갈등과 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들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 시대에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사역의 필요성과 목적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피스 메이커의 날에 “피스 메이커 상”을 제정하여 시상한다고 하는데 그 상은 갈등과 분쟁의 어려운 국내 현실 가운데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는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국가, 민족적으로 화해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이를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상 목적의 3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 목적이 이렇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을 격려하고, 더욱 그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며”(인터넷). 저는 피스 메이커 상의 첫째 목적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묵묵히 수행한다는 말에 도전을 받았습시다. 그리고 도전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 안에서 하나됨(unity)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12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산상보훈 중 “팔복”, 즉 ‘여덟 가지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한 말씀을 복습한다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행복이란 첫째로, 천국(3절), 둘째로, “위로”(4절), 셋째로, “기업”(5절), 넷째로, 배부름(만족함)(6절), 다섯째로, 긍휼이 여김을 받음(7절), 그리고 여섯째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8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배웠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긍휼이 여기라’(7절)였고, 둘째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8절)였습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과 일곱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삶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 되라’(Be the peacemakers)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저는 잠언 20장 19-22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한 3가지로 받았었습니다. 그 첫째 교훈이 바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는 교훈을 받았습니(19절). 그 이유는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므로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말쟁이는 다툼을 일으키며(26:20) 또한 친한 벗을 이간시키기 때문입니다(16:28). 여러분은 이 교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가정이나 직장 등등)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입으며 또한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까? 심지어 왜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가정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그 원인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잠17:9).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내어(약4:2)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에(3절) 우리

가운데에서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0편 6절을 보면 시편 기자도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화평을 원했지만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다투기를 좋아하며 거짓말로 남을 해하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8절). 결국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1-2절).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그 일생에 까닭 없이 악평을 받는 일이 많다. 그러나 그것을 방지시키는 방도는, 그것을 하나하나 변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하여 그의 도우심을 받음이다”(박윤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을 미워하는 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마음으로 미워하여 까닭 없이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고 심지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에 대하여 비판하며 악평을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힘든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의 비판과 악평을 하나하나 변호하려고 하기보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여러분의 심정을 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나 어떠한 조직이나 한 3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peacemakers)입니다.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인간관계에서나 갈등과 분쟁이 아닌 화평을 추구합니다. (2)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화평을 지키는 자들’(peace-keepers)입니다. 이들 또한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어떠한 갈등과 분쟁의 요소가 있는 단체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화평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3) 그런데 문제는 바로 셋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화평을 깨는 자들’(peace-breakers)입니다. 이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싸우는 정욕에 이끌림을 받아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과 화평을 지키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안에 화평을 깨는 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갈등과 분쟁 속에서 분열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을 깨는 자들은 결코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취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의 빛을 이 세상에 비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비취야 할 착한 행실의 빛은 무엇입니까? 그 착한 행실의 빛은 예수님의 행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취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행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와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실을 본받아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실은 화평케 하는 것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지체)으로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 4:3).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2절).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2절). 왜 우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과 교만함과 오래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용납해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화평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롬5:10),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8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셨습니다(10절).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2:14)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15절). 그러므로 이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18절).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14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19절)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므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롬5:1).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서로 원수 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기간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로 화목케 하신 것처럼(엡2:14-15)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써 서로 원수 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5장 23-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롬14:19).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마5:9).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화평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갈3:26).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화평하게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말입니다(MacDonald).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평하게 하기보다 화평을 깨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화평하게 할 때에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Barclay).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미국 남가주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화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지 비결을 소개하였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는 새들백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화목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교회의 화목은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서 14장을 토대로 화목한 교회로 목회하는 비결을 6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습니다: (1)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라, (2)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3)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라, (4)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라, (5) 다른 이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6)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덟 가지 행복 (8):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10-12절]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살게 괴롭힘을 당하여 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신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입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 화요일,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노회 모임 때에 한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노회원들에게 허락을 받고 ABC 교육위원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말하셨습니다. 그 사모님의 말로는 지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해 사용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고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AB1266)에 서명했으며 2014년 1월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이것을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니까 아마 선거하시면서 이런 저런 힘든 일들을 접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이젠 사모님은 원수들이 많이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짝하여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 살려고 하면 원수들을 많이 만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며 해하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뻘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며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12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여덟 가지 행복 중 마지막 여덟 번째 행복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4 가지 요구(명령)들 중 마지막 네 번째 요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요구는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입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데이비드 바렛 선교사와 해외선교연구센터(OMSC, 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가 발표한 '20세기와 21세기를 배경으로 한 2003년도 선교동향'에 의하면, 올해 기독교 순교자의 숫자가 16만 6000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3년 전인 2000년의 순교자 수는 16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순교자의 숫자는 1.24%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25년에는 한해 21만 명이란 엄청난 숫자가 순교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순교자 발생지역은 대부분 기독교 박해국가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라오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소말리아 등등.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까? 아랍계 회교 국가들의 대부분이 종교적 극단주의로써, 기독교 박해에 적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독교 탄압이 가장 심하고 가장 폐쇄적인 회교국가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무슬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무장 이슬람 단체들에 의한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사태가 파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취약지구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북한, 라오스, 베트남, 쿠바 등 잔존하는 공산주의 국가들 또한 기독교 교회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이렇게 위협과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박해를 받지 않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회교도나 공산국가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를 받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이요 둘째로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정화되기 때문에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고난과 박해가 축복인 이유는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6절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의”라는 단어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3

가지 의미 중 첫 번째 의미인 “(정)의”(righteousness), “옳은 것”(what is right), “공의”(justice)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정의, 또는 옳은 것, 또는 공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를 행하는 것, 즉 정의(공의)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옳은 일(정의/공의)을 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있고 또한 우리는 심지어 많은 때에 이 세상과 타협까지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적어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옳은 일(정의/공의)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외에도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당연히 나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부당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통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을 봐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11절 말씀은 10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며 거짓으로 그들이 우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뒤돌아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들로 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들 중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재위 기간 54-68)는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학살하였고, 사도들의 살해를 맹렬하게 추진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Dominus et Deus·주주와 신神)’라 칭하고 황제 숭배를 명령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재위 기간 81~96)는 불복종하는 성도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박해는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는 일절 금지되고 맙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재위 기간 284~305) 때에는 네 차례에 걸쳐 칙령이 반포됩니다. 그 반포된 칙령은 이랬다고 합니다: (1) 기독교의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기독교의 책을 불태워 버릴 것, 그리고 신앙을 공언하는 자는 관직을 박탈할 것, (2) 교회의 목사와 직원을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둘 것, (3) 제사하는 날에는 감옥의 문을 열고 여러 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기독교인은 석방할 것이며 거절하는 자는 고문할 것, (4)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으로 하여금 여러 신들에게 절하게 할 것이며, 희생의 제물을 바치게 할 것. 이에 굴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처참한 고문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채찍질을 당한 뒤 피에 굶주린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거나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기는 등 끔찍하고 야만적인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신은 방치되었다가 불에 태워지거나 강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정부의 위력으로 그리스도교를 박멸하려 했던 것입니다(인터넷).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3-3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심지어 죽임(순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 하지 않겠습니까? 새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모세처럼 상 주심을 바라보므로(히11:26)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이 세상에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합니다(25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26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모든 박해(마5:11)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야 합니다(히11:26). 그리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덟 번째 행복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마5:10).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제 딸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아이에게 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 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 딸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까지 하게 된 이유가 그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기 때문으로 기억합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녀가 저에게 그리 질문한 이유는 제 전도 대상자 친구가 그 전 주말에 만났을 때 저에게 ‘만일 동성연애자가 너에게 와서 주례를 서 달라고 하면 너는 뭐라고 할거냐?’는 질문을 제가 그녀에게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들은 제 딸은 저에게 ‘아빠는 어떻게 할거예요?’라는 식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기에 이 아빠는 “No”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본 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기억나서 예리에게 우리 한국 신앙의 귀한 분이 되는 순교하신 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해준 것입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 11월 25일 태어나셔서 1944년 4월 21일, 47세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서 복역 중 고문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옥사한 분이십니다(인터넷). 그분의 넷째 아드님이신 주광조 장로님이란 분이 아버지의 순교증언 내용 중에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주 목사님이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병어리가 될 수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닌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병어리가 될 수 없어서, 그리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 죽었을 뿐입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고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기도문입니다. 다섯 기도 제목 중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도 내용과 네 번째 기도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1)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 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열백 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백년, 천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체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받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이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테반은 청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4)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열 번, 백 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에 네게서 떠나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사이다.” (5)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에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 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케 하사 영광의 조건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멘.”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4장 18-2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인 “나를 따라오라”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더 높은 부르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즉시 버려 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 세배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란 제목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무슨 뜻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주몽'을 보면 소금이 중요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옛날에는 노동의 삯으로 소금을 지급하고 또한 소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나 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 샬러리(salary)가 소금(salt)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정도로 소금은 매우 중요하고 귀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금처럼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소금이 가진 역할 때문입니다. 그 역할 중에 하나는 음식에 맛을 내며 또한 음식을 부패방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까 음식이 차지하는 중량의 12% 이상의 소금으로 절인 음식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러나 이 부패방지 외에도 소금의 역할들이 더 있는데 한 8가지라고 합니다: (1)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설 처리하는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혈액이 산성화 되고 면역성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2)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철분이 부족하여 적혈구가 생성되지 않아 빈혈이 됩니다. 동맥경화 및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3) 체액의 균형을 이룹니다. 염분은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신진대사가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영양분을 흡수, 저장하게 합니다. (4) 소화를 돕습니다. 소금은 위와 장벽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의 유동 작용을 도우며 장내의 이상 발효를 방지하여 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영양분이 체내에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해독과 살균작용을 합니다. 염분은 인체 내에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이 침입하여도 세포와 혈관에는 침입하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6) 해열과 지열 작용을 합니다. 찰과상으로 피가 나는 부위에 소금을 바르면 금세 피가 응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체내에서 해열과 지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 세포를 생산합니다. 소금은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좋은 소금을 섭취하면 신체에 활기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없애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인체의 혈관을 정화시키고 소화 작용을 도우며 장의 기능을 도와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막아주는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인데 소금에서 적게나마 공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만나게 하고 또한 인생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을 맛나게 하기 위해서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듯 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부패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치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쓸 데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 쓸 데 없는 사람들로 전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복음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며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마태복음 5장 14-16절]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맛을 내며 또한 이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4-16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6절). 여기서 “이같이”란 말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15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취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16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 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취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영생)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요1:4)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5:16).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므로 이 세상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착한 행실을 오늘 본문 문맥에서만 한 3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착한 행실이란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입술로만 순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20절).

둘째로, 착한 행실이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것입니다[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고전13:5)]. 성경 마태복음 5장 21-22절을 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사랑하는 삶은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보십시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며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46절). 그러한 사랑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들도 다 할 줄 아는 사랑입니다(47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인 우리 같은 죄인도(롬5:8, 10)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착한 행실이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27-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는 간음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면(이혼하면) 그 배우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32절). 그리고 그 버림받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2절).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히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16절). 그러기 위해서 언행일치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8절]

여러분 생각엔 미국인들이 어떤 일로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인터넷) 2013년 새해 첫 바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은 “근심과 걱정”(60%) 및 “할일을 뒤로 미루기”(6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받는 유혹은 “과식하기”(55%), “미디어에 너무 많이 시간빼기기”(44%), 그리고 “계으름과 일 회피”(41%) 등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은 “과식하기”(66%)로 나타났으면 그 다음이 “근심 걱정”(58%)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들을 미국인들은 어떻게 피하는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유혹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딱히 별로 없다’(59%)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인들의 가장 많은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기’(18%)였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웬지 우리는 유혹을 유혹으로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리 힘쓰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에 힘을 써야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39, 42; 눅22:42)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오직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8절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실천하여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이미 받은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저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인바 된 것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MacArthur).

“외식하는 자”란 원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자’(pretender)란 말입니다(Swanson). 예를 들어 외식하는 자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신앙이 좋지도 않은데 좋은 척, 성경도 많이 모르면서 많이 아는 척, 기도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많이 하는 척 등등, 외식하는 자는 영화배우처럼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극합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는 척척 박사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적 예식은 척척 잘하면서 마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무척이나 잘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행동은 기도한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하여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당이나 큰 모임에서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참고: 고전14:15).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모세를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2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 받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수모를 받았습니다. 왜 모세는 그리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애굽 왕 바로나 바로의 공주나 등등 사람들에게 받는 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상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상 받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보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생활 하는데 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은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5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공적 기도(public prayer)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서는 그 공적 기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입술로는 기도를 잘 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적 기도를 하기 위해선 개인의(은밀한) 기도(private prayer)가 있어야 합니다(Wiersbe).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는 개인의 기도 습관이 없이 그저 공적 기도하는 습관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참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기도 습관은 더욱더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데 입술로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신앙 생활하는 척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3 가지입니다. 그 3가지는 바로 조용한 시간(Quiet time)에 조용한 장소(Quiet place)로 가서 조용한 마음(Quiet heart)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습관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은 방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후배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무슨 방언처럼 기도하기에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욱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할 방언으로 일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8절에 가서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33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그 당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의미도 없는 말을 반복해서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자기들의 신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열왕기상 18장 29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때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이 바알에게 기도하는데 시간이 정오가 지나도록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그리 긴 시간 동안 떠드는 게 기도입니까? 성경 전도서 5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마6:8).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훌륭한 목사님들 중 한 분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터졌을 때 6학년과 2학년인 두 아들이 좌익 학생들에 의해 총살되었지만 그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 전도사로 키워낸 그의 일대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 또한 1966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들려진 10가지 감사기도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인터넷):

-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2)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3)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 (4)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5)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 (6) 미국 유학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 (7)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8)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 (9)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 (10)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13절]

우리는 “너는 기도할 때”란 제목 아래 마태복음 6장 5-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3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1) 첫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공중 기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김세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인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 둘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 그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3) 셋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서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신 후 8절에 와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즉,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아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8절에 와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공중 기도나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교훈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와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13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한 4가지로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받아 우리가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이십니다. 지난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념하는 공휴일 가족 식구와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가 가는 길에 도넛츠 집을 보고 저에게 ‘아빠, 저 도넛츠 사 줄 수 있어요?’라는 식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은이에게 우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은이는 저녁 식사 도중에도 여러 번이나 도넛츠 얘기를 꺼내는 것을 제가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좀 끈기 있게 주실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식사하다가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아빠가 예은이에게 도넛츠를 사준다는 확신이 있느냐?’ 결국 저는 식사를 다 한 후 그 식당 근처에 있는 도넛츠 스푼에 가서 **drive thru**로 도넛츠 12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예은이에게 ‘너가 아빠에게 도넛츠란 말을 몇 번했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조용하기에 알고 보았더니 자기 머리로 세고 있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8번’이라고 하더군 ㅎㅎ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1-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느 아빠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빠’란 무슨 표현입니까? 그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언어로서 성경에서는 언약 신학의 표현입니다(김세운).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은 양 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로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의 아들, 딸(자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독특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16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8:15-1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란 말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부유함을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받는다든 것은 결코 모자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내가 끌어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의 부요함을 끌어 쓰고자 하는 행위, 그것이 기도입니다”(김세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친근감을 강조하지만 ‘하늘에 계신’이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김세윤). 즉,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친근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김세윤).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요(26절)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32절).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개의 ‘당신’ 청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9절과 10절에 3개의 ‘당신’ 청원이 나옵니다: (1)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 (2)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10절), (3)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10절).

(1) 첫 번째 ‘당신’ 청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9절).

여기서 ‘이름’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분으로서(출3:13)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김세윤). 그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기에 초월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스스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김세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이면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도

여호와와 그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는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므로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21-2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되 우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당신’ 청원은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입니다(마6:10).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들 중에 “카디쉬”(Kaddish)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와 ‘18번 축복 기도’ 즉 ‘세모네 에스레(Shemone Esre)’라는 긴 형태의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김세윤). 그 18번 축복 기도를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이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김세윤). 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과거 유대 역사의 황금기의 회복과 유대의 공의로운 심판 시스템을 회복하고 지혜로운 현군의 통치가 있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김세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단자들에 의해 섞이거나 부정해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로 지탱케 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김세윤).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유대 민족주의적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유대 민족의 정치적 해방과 사회적 공의와 경제적 풍부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 중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오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 기도는 ‘오게 하소서. 당신의 통치가 오소서’라는 기도입니다(김세운).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던 민족주의적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의 공동체로서 로마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영원한 죽음과 사단에서의 해방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영적 축복들을 누리면서 영원한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 “(당신의) 나라이 임하시오며”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세 번째 ‘당신’ 청원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10절하).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입을 여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듣다가 요한복음 12장 27-28절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이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빌2:8).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주기도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롬12:2).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3개의 ‘우리’청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3개의 ‘우리’ 청원이 나옵니다: (1)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2)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1) 첫 번째 ‘우리’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11절).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으로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김세윤). 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2-3절)라고 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4절).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시사(8, 9, 12절)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내려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사 날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16절).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양식)을 남겨두지 말라고 명했습니다(19절). 그런데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그 양식을 두었으므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2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되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감절의 식물을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셨습니다(5, 2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23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새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감절로 거두어 드리므로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아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식사기도 할 때 ‘오늘 우리(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식탁 앞에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음식투정을 부리면서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등등 말하면서 불평하십니까? 저는 출애굽기 16장을 새벽기도회 때 묵상하면서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없어 주려 죽는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광야에 있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35절)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과연 그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시78: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기보다 불만족 속에서 불평이나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마태복음 6장 25절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31-32절)고 말씀하고 계신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것으로 염려하여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염려 가운데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32절). 이 불신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등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33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2) 두 번째 ‘우리’ 청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12절).

이 기도를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저자 마태가 “우리의 빛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저자 누가는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빛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죄들”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풀러 신학교 신약 교수이신 김세운 박사님에 의하면 원래 예수님께서서는 저자 마태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빛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원어 헬라어로 누가복음 11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저자 누가도 “우리도 우리에게 빛진 자들 모두를 용서합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원래 용어가 “빛들”인데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4절 상반절에서 “우리의 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누가는 유대인들이 죄를 ‘하나님 대한 빛’으로 보았고 또 ‘이웃에 대한 빛’으로 보았기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 누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한대로 죄를 하나님의 빛으로 보고 “우리의 빛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4절). 그가 유대인적 속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그리 쓴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김세윤).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빛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13절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 14-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드린 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잘못된 한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죄 용서가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함을 받은 일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많이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적으면 우리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적에 용서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사랑함이 많으므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3) 세 번째 ‘우리’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마6:13).

이 기도는 유혹에 빠져 가지 않도록 허용하지 말아주시고 사단(악)에게서 건져(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김세운). 여러분, 왜 우리가 유혹에 자꾸만 빠집니까?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욕심에 끌려 살아가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으로 인하여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엡4:22)의 라이프스타일로 죄를 지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범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영역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고 유혹하여 결국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지 못하게 할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들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므로 죄를 짓게 하여 죄로 장성케 하여 사망을 낳게 만듭니다(약1:15).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안목의 정욕)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이생의 자랑)는 것은 바로 그녀는 사단의 유혹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우리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마6:33). 결코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26:41). 우리는 사단의 죄악과 죽음의 통치로부터 지금 여기서 건져냄을 받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김세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김세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송영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주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란 무엇입니까? 송영이란 문자적으로는 외워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서 주로 예배 시작이나 마지막에 들어가는 기도 형식의 송가입니다(김세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부분에서 송영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원래 유대교의 기도 관행에 의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송영’없이 끝나는 기도가 없다고 합니다(김세윤). 이 송영의 문자적 의미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입니다(김세윤). 여기서 “왜냐하면”(For)이란 접속사는 13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란 기도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송영과 관련해 우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7-18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게 건져주시사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kingdom)와 하나님의 권세(power)와 하나님의 영광(glory)을 송영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새 찬송가 635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둥시다.

[마태복음 6장 19-24절]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경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이르기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경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한 마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14절).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 질 위험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입니다(13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땅(7절),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9절)인 가나안에 들어가 먹어서 배불리고(10, 12절)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면서(12절) 그들의 우양이 번성하며 그들의 은금이 증식되어 그들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 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교만해 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배가 불러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특히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풍족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배가 불러 교만해 질까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비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비만이 생겨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될까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둥시다”란 제목 아래 과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누가복음 12장 16-21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므로 심중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란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였습니다(눅12:17). 그가 고민 속에 선택한 것은 자기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18절). 이 부자는 공간을 더 크게 저서 그 곳에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되(18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둔 후 자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19절). 이러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2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21절).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재물이 많아질 때 자기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저서라도 이 땅에 쌓아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은 바로 부 혹은 재산이나 소유물을 가리킵니다(Walvoord).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현대 말로 하면 부동산(건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말씀은 재산을 이 땅에 쌓아 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아질 때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가 자기의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처럼 은행 구좌를 여러 군데 열어서라도 그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둘 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첫째 질문은,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가 여태껏 준비한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본 큰 폐단 되는 것으로서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13절). 그런데 결국 그 재물을 제대로 누리보지도 못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다 잃어버리게 되므로 자기 자식들에게도 물려 줄 재산이 하나도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입니다(14-16절). 이 전도서 5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부요를 능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의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결말이 상상이 되십니까? (2) 둘째 질문은,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21절)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쌓아둔 모든 재물이 있다면 오늘 밤에 죽으면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란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었습니다(Walvoord).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부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부요를 결코 은을 사랑하는 자(전5:10), 즉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만일 주신다하여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재물과 부요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주(징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징벌 중 하나는 바로 욕심의 배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이 더 많아지면 결국은 그 돈으로 인하여 욕심이 더욱더 생겨서 결코 만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벌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욕심의 배를 갖는다는 게 큰 저주입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의 배를 소유한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마음에 평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십니다(참고: 시112:1-3).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눈이 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2-23절을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눈(영안)이 어두워져서 재물의 욕심(탐심)을 내므로 그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6장 14절 상반절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아니 됩니까?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돈을 사랑하므로 돈을 탐내면 우리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9절).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면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돈이나 재물이 다 해하여 지던지 아니면 도둑이 훔쳐가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MacDonald). 한 마디로, 왜 우리가 이 땅에 돈이나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에 마가복음 10장 17-22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재물이 많은 한 사람과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쭙을 때(17절)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17절)고 말씀하신 후 그에게 그가 아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19절). 그 때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답했습니다(20절). 그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21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화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은 방법은, 땅에서 나의 모든 좋은 것들(물질 뿐 아니라 노력과 재능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함이다”(박윤선).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2장 33-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요 그 보물은 다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문맥인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즉,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하여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21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For”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접속사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는 말씀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항상 영원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16:24). 우리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 희생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런 무엇일까요? 그 좋은 예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24-26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 중 고난 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믿음으로 장차 자기가 받을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주님 앞에서 설 때에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순간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남미 에과토르에 살고 있는 잔인한 아우카족(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29세의 젊은 나이로 다른 네 명의 선교사님들과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마지막 셋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24절), 즉 “집 하인”(눅16:13)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한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한 주인을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그가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면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웬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6:24).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을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이상화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물질을 위해서 하고, 일을 해도 물질을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물질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물질을 축복을 구하고,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를 받아도 물질의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우리는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귀 모두 다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도 물질의 축복을 추구하는데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1).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보물에 빼앗겼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의 보화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딤후6:10). 우리는 물질의 복 받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물질의 복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의 복을 받은 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면서 그 물질을 우상화하여 섬기는 죄를 충분히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복보다 그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비결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받쳐 희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물질을 경하여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잠언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에게만 가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물질을 경하여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거둬 가시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거둬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소득이 점점 많아질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소득은 결국 우리 마음의 교만과 욕심을 더욱더 부추겨서 물질을 우상화하는 죄까지 범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므로 말미암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우리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34절]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4장 13-15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여4러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4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25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는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눅12:29). 달리 말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의 필요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32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삶 속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여 이런 것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염려)된 일이 참 많은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2-3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님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지만 장가 간 사람은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한다는 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란 새 찬송가 486장 1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둔하여 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없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보다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 중 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3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3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 그 첫째 이유는,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염려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실뿐만 아니라 하늘의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날마다 필요한 일상적인 필요들을 안주시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 목숨이 음식이나 의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에 내포된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영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롬8:32).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안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을 안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기가 전혀 힘들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 그 둘째 이유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14절)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1절)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2절).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3-4절).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보배로운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17-18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제일 잘 아시고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음식이나 마실 것이나 입을 옷을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3) 그 셋째 이유는,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생각났습니다. 그 노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불드사 평탄한길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성가를 작사하신 고 안이숙 사모님이 쓰신 책 “죽으면 죽으리라”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은 1945년 8월 18일 오전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박관준 장로님이란 분과 그의 아들이 일본 국회의사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 사명이다” 외치면서 일본은 “유황불에 망한다”는 경고장을 던졌을 때 세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그 장로님과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나가버린 후 어떤 수위가 따르고 있었던 안이숙 사모님에게 ‘당신도 이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서슴없이 “그렇다”고 말하여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결과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

6년을 옥고를 치르다가 1945년 8월 18일 오전 사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에 항복하고 사형 집행 하루 전날인 8월 17일 광복과 함께 안이숙 사모님은 출옥하셨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신 안이숙 사모님을 사형이 예정된 하루 전날 극적으로 건져내신 이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극적인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안 사모님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고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라고 찬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험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이고 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가 내일 사형 당한다 할지라도 고 안이숙 사모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속에서 내일 일은 주님께 다 맡겨 버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2 가지 예를 드셨는데 그 첫 번째는 공중의 새(26-27절)며 두 번째 예는 들의 백합화(28-30절)입니다. (1) 첫 번째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6-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첫 번째 예인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새가 우리 사람들처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가 우리 사람들처럼 농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대답은 “아니오” 아닙니까? 농사도 못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계시다면 그 새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바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로 우리가 “키”라 하면 몸길이를 생각하는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생명의 길이”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Swanson). 저는 이 “키”라는 단어를 주로 몸길이로 생각했었는데 “생명의

길이”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염려하므로 육신의 몸길지만 자라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길로도 한 시간이나 하루 더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므로 그의 삶을 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므로 우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하면 우리 건강에 더 해로운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예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들의 백합화가 자라남에 있어서 수고와 고통(실을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조차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고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26절). 우리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28절). 우리는 그것들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산 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사43:4).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입히신다면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이 염려될 때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의식주라면 우리는 평생 염려하면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11절)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박윤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한 성경 빌립보서 4장 6-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구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여러분 생각엔 한국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가 점차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엔 왜 한국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 11월 16일, 한국기독교자교수협의회에 개최한 종교개혁 포럼(주제: ‘두 번째 종교개혁은 가능한가?’)에서 왜 한국 교회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분리된 삶과 신앙 때문.’ 연세대 한인철 교수는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가 ‘신앙과 삶의 분리’임을 지적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굳이 예수님처럼 살 필요도 없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믿되, 예수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지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천당 가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처럼은 살고 싶지 않기에, 아니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싫어하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교훈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비판”과 “심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터넷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비판”이란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그리고 유의어는 “비평, 판단, 평”이 있습니다(인터넷). 그리고 “심판”이란 단어는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기독교에서는 “심판”이란 단어를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합니다.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인터넷). 제가 이 두 단어의 정의를 찾아 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비판”은 네이버 사전에서 말하는 “비판” 즉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물 채용과 관련된 인격 비판을 금함도 아니고, 건덕상 유효한 인물 비판(비방이 아님)을 금함도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재판장 격이 되어 남을 평론 혹은 정죄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판”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로 “크리네테”(κρίνετε)란 단어로 그 의미는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인터넷). 즉,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심판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1-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이웃을 심판합니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도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비방”(slander)과 “판단”(judge)이란 단어를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이웃을 판단(심판)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방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네이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서로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인데(인터넷) 원어 헬라어적 의미로 해석하면 ‘서로 개인적인 비난(condemn)을 하지 말라’ 또는 ‘서로 단절/결점을 찾기 말라’(find fault with)는 말입니다(Friberg).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서로의 결점을 찾아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판단하였습니까? 왜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형제들을 정죄하였습니까? 그 원인은 유대인 성도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에 이방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했기에 자기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착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마음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였는데 후에 나 자신도 그 사람과 동일한 행동이나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을 깨닫게 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와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상대방 보다 낫다고 착각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깔보고 심지어 판단하며 정죄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영적 우월감이 드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마음에 특권의식과 공로의식 등이 은혜 의식을 대치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2절).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1절). 우리가 판단(정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판단(정죄)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저울질 당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저울질 하지 말아야 합니다(2절)(현대인의 성경).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4절에서 한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 받는 것을 매우 작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판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왜지 바울의 말이 교만하게 들리지는 않나요? 바울은 그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기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바울은 재판장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앉게 하지 않고 마땅히 앉아계셔야 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게 하였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이 판단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둘째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로 외식하는 자라 하면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다른데 그는 속 보다 특히 겉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겉모양은 사람들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최악 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을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딤후3:5). 구약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욘 8:13; 15:34-35; 17:8; 사 9:17; 33:14).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습니다(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면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음).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의 결점은 무시해 버렸습니다(마 7:1-5). 그러면 예수님 당시 누가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종종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외형적인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 사이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마 15:1-9). 외식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장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설교한 대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23:3).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부는 더러우면서 속만 깨끗한 척 꾸미는 회칠한 무덤과 비교하셨습니다(23:25-28)(인터넷). 그런데 질문은 과연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는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외식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은 아닌지요? 특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판단(정죄)하면서 우리 자신의 결점을 무시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큰 결점이나 죄는 보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 다른 형제의 지극히 작은 결점이나 죄는 잘 보고 우리 마음으로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눈 속에 있는 “티”는 톱밥의 티나 나무나 깨진 유리 조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톱밥의 티나 나무 조각 또는 깨진 유리 조각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식하는 자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외식하는 자는 그리도 작은 형제의 흠(결점)을 잘 볼까요? 그 이유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식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큰 결점을 보지 못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지극히 작은 결점을 잘 보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의 흠(결점)이 잘 보인다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흠(결점)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다고 말로는 하지만 마음으로 그 결점을 무시할 정도로 상대방 형제, 자매의 결점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의식하여 우리의 걸모양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그리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외식에 대한 좋은 예가 갈라디아서 2장 11-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그들을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12절).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였습니다(11절). 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의 외식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14절). 바울은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14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참 유대인이면서(16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방 죄인”(15절)처럼 행한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베드로가 참 유대인(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이방 죄인들로 하여금 참 유대인(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망을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서 왜 그 은혜 의식을 버리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섬김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선행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것이며 우리의 속사람과 겉 사람의 간격은 더욱더 벌어져서 경건의 모양은 사람들 보기 참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딤후4:2) 자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익숙한 종교 생활과 위선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26절에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7:5).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 영적 거울로 우리 마음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들추어내시고 우리의 양심을 찌르실 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막7:6). 그리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구제나 봉사 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마23:28).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판장 격이 되어 남을 평론 혹은 정죄하면 아니 되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판단이란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판별(discern)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자들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되 특히 우리는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13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영적인 일은(14절) 무엇이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이 세상에서 온 것인지(12절)를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16-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이 땅 위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 땅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여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14절).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17절).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레10:10).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개나 돼지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동물들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MacDonald).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권해야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Keener). 성경 잠언 11장 22절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어울립니까? 돼지가 금고리를 귀하게 여깁니까? 돼지는 금고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것을 귀하게(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악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what is sacred)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거룩한 관유”(a sacred anointing oil)(출30:25), “성회”(a sacred assembly)(레23:7, 35; 신28:18, 25), “거룩한 세마포”(the sacred linen tunic)(레16:4), “거룩한 패”(the sacred diadem)(출 29:6), “거룩한 옷”(sacred garments)(출28:2), ‘거룩한 제단’(the sacred stones)(출34:13)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룩한 것”이란 “거룩한 명령”(the sacred command)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한 명령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악인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근거는 사도행전 13장 46-48절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그 거룩한 말씀을 거절하므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지혜롭게 판단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하는 악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지 말고 돌이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 듣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판단력(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신32:28).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한 예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 가운데 형제간의 분쟁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원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5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시72:1).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눅12:57).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선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나 잘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의 외식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외식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한 후 버려야 합니다(벧전2:1). 더 이상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진심(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참고: 막7:6).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것입니다(행11:26).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7-11절]

기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 혹은 기도의 용사라고 불리었던 죠지 윌러 목사님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역사상 기도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5만개 이상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죠지 윌러 목사님의 평생 기도 수칙 6가지를 알게 되어 여러분들과 나눕니다(인터넷): (1) 예수님을 의지하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라. (2) 죄를 버려라!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마음에 숨긴 죄악을 버려라(시 66:18). (3) 믿어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히11:6). (4) 인내로 기도하라! 기도자의 자세는 첫째도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다. 농부가 오랫동안 참으며 추수할 때를 기다리듯이, 기도하는 자도 기다려야 한다(약5:7). (5)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경건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약4:3).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기 위한 6가지 자세는 이렇습니다: (a) 자신의 뜻을 포기하라, (b)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 (c) 성령과 말씀을 바라보라, (d) 환경을 고려하라, (e) 하나님의 뜻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라, (f) 결정했을 때에 마음이 평온한지 점검하라. (6) 할 수 있는 한, 새벽에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여라(시46:5).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 5-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먼저 5-8절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3 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1) 첫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둘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 셋째 교훈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장 9-13절에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한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2) 3개의 ‘당신’ 청원입니다:

(a)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 (b) ‘(당신의) 나라이 임하옵시며’(10절), (c)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10절). (3) 3개의 ‘우리’ 청원입니다: (a)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11절), (b)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12절), (c)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13절). (4) “송영”입니다(13절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한 3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Willmington):

첫째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 사용하신 3 동사인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는 단어들은 모두 다 현재 시간의 명령사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그리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Willmington). 또 다른 주석가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11절과 제일 가까운 문맥인 1-6절에서 비판(정죄)하지 말라, 외식을 버리라 그리고 판단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긴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Wiersbe). 이 2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주석가의 해석보다 Word Biblical 주석의 해석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석의 해석의 주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것”(good gifts)이라는 것입니다(Hagner).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이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할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11절과 유사한 누가복음 11장 9-13절 중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가 말한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절히 구해야 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간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보혜사의 희랍어 원어 ‘파라클레토스’(paraklhto)는 원래 법정 용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원고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심히 추궁당하여 스스로 변호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때,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 피고 곁에 세우는 관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친구는 피고에 대한 ‘파라클레테스’(paraklht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변호하여 승리케 하는 위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ajllo paraklhto)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암시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형용사 ‘다른’에 해당하는 ‘알로스’(ajllo)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은 다른 것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인터넷).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이 그들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그들을 떠나야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16:7).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길 간구한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14:26).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간구한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5:26).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장래 일도 그들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6:13).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계속해서 구해야 할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못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엡2:8)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참고: 엡5:18).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를 충만히 맺어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행4:31).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인터넷).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섯 가지 확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었고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성경구절을 외우긴 하였지만 제 마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들었다기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더하였습니다. 특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말씀대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 제 기쁨이 충만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그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 제목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부족함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저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늘) 그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 주길 계속해서 구하였을 때 그 과부가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2-5절).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6-8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여러분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끊임없이 지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성경 야고보서 1장 6-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아닌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하되 기도 응답의 확신(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작흥(흥을 일으킴)시키고 격려시키는 것은 없다.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무력하고 냉정하고 태만한 죽은 의식에 불과하다”(박윤선). 실제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큰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경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담대해 집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마21:22),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요14:1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15:7).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기에(딤후2:13)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끊기 있게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good gifts)을 주시는 변함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은 온갖 좋은 것, 즉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하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그 비교는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9-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것을 말씀하신 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11절에 와서는 악한 아버지와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하셨습니다. 이 비교의 요점은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말씀이 아닙니까? 어느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구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적어도 자기 핏줄인 자식에게만 에게 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물며”(11절)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한 두 군데 성경 구절 말씀을 묵상케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1절)것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에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2절)과 “하나님”(7절)을 비교하셨습니다. 그 비교의 내용은 그 불의한 재판장(6절)도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7절).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 “하물며”란 단어를 생각할 때 묵상케 된 두 번째 성경말씀은 요나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 요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하나님 자신과 비교하셨습니다. 그 비교의 내용은 요나는 자기가 수고도 아니 하였고 재배도 아니 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박넙쿨을 아꼈다(욘4:10)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0,000명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11절). 여러분, 박넙쿨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20,000명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더욱더 아껴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수고도 하지 아니한 순간적인 것을 아끼고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젖 먹는 아기를 낳아 기르는 엄마와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 비교의 핵심은 어미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엄마도 자기 아기가 젖 달라고 울 때에

마약을 주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52년간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인터넷). 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한 기도 제목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한 기도였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 계속 기도한 물러 목사님, 한 사람, 두 사람 믿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러 목사님은 이들을 위하여 약 52년간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물러 목사님이 이제 노년이 되어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날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들던 그의 한 친구가 물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물러 목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한 친구가 물러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는 자기의 친구 물러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고 나서 그 친구가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물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끊기 있게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남을 대접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여러분은 대접을 잘 받고 살고 계십니까? 포항 사는 이승길 선생님이란 사람이 쓴 “대접 받는 방법 7계”가 있어 나눕니다. 아마 원제는 “나이 먹어도 대접 받는 방법”인데 나이를 먹었든 안 먹었든(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인터넷): (1) Clean Up - 집과 환경을 깨끗이 하라. 분기별로 정리-정돈하여-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폐기하라 귀중품-패물을 장롱 속에 감춰두어 녹슬게 하지 말아라. 유산으로 남겨보아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살아 있을 때 친구나 이웃에게 선물로 주어보라.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얼마나 멋있는가, (2) Dress Up -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하여 구질구질하지 않도록 하라. 옷을 아끼지 말라. 머리 염색을 하라. 유행하는 컬러의 옷을 입어라. 구두를 닦으라, (3) Shut Up - 입을 닫으라. 말하기보다 잘 들어라.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 항상 내가 할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스스로 묻고 말하라, (4) Show Up -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 교회, 동창회, 향우회, 이색 모임, 동아리 모임...등등 아무튼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 부대껴라. Out of sight, out of mind(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귀찮더라도-가고 싶지 않더라도-가서 만나라, (5) Cheer Up - 언제나 밝고 기쁘게 살라. 밝을 일 없고 기쁜 일 없어도 밝은 척하고 기쁜 척하라. 신기한 일이다. 그리하면 없던 밝음, 없던 기쁨이 생겨난다, (6) Pay Up - 돈을 써라. 돈 이 없으면 몸뚱이로 내라. 몸뚱이도 시원치 않으면 입으로 덕담이라도 하라. 얻어먹지 말고 베풀어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 어디서나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입은 열수록 품위가 떨어진다. 지갑은 열수록 품위가 올라간다. 입은 닫고 지갑만 열면 그 품위는 하늘을 찌른다”, (7) Give Up -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포기 하라. 부부-친척-자식-친구-이웃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뭔가 미련을 두고 기다리지 말라. 바라지 말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음을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는가? 미적미적 미련을 두지 말라. 그리하여 마음을 가볍게 하여 너의 길을 가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남을 대접하십시오”란 제목을 걸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한 인터넷 칼럼을 보니까 “국제 거래 시 외국인 접대 어떻게 할 것인가?”란 제목아래 글이 있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게 된 이유는 글을 쓴 사람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도 언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25년 이상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국적도 문화도 다른 술한 외국인들을 만나 접대하면서 외국인을 접대할 때 변치 않는 보편적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상대방을 말로서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대접을 하면, 상대방으로부터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어느 누가 정성으로 대접을 받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접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대접을 받는다는 것, 잘 못된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나는 상대방에게 정성껏 대접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는 기분이 참 좋았는데 나는 그 상대방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충 대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리 대접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축복의 원리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는 받는 기쁨은 알지 모르겠지만 주는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남을 대접을 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기보다 불평, 원망하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누가복음 10장 38-42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는(38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였습니다(40절). 그런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39절). 그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 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40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41-42절).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래도 주님의 종을 영접하여 대접해야지 하고 집에

목사님에게 집에 오시라고 초청은 했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으면 마르다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집에 왔는데 나 혼자 일하게 두는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을 볼 때 가정주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분주한 이민 생활에 즐거운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에 손님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일을 자주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두 성경구절 말씀만 생각해도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원문을 글자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박윤선). 과연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과 유사한 누가복음 6장 31-32절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즉,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생각할 때 복음성가 두 곡이 생각납니다. 물론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라는 복음성가도 있지만 특히 저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복음성가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사랑”을 생각할 때 두 복음성가를 유난히도 생각하는 이유는 그 노래들의 제목 자체가 저에겐 위로와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그 하나님의 사랑.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이 세상에)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과 유사한 누가복음 6장 31-36절 말씀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2-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는 것, 죄인들도 그리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자기들에게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이 더 큰 사랑, 더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Radmacher). 우리 자매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좋게 해주면 당연히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고 좋게 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랑을 안 해주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를 선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대한 자만을 선대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선대는 결코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받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들에게 구어주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어 주느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융자) 받으면 우리는 그 대출

받은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집안이 재정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없으면 그들은 은행에서 용자를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공부를 마치면 그 빚을 갚고자 직장을 잡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은 용자한 돈 외에 이자도 붙어서 실제로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당시에 유대인들은 꾸어준 것에 대하여 이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이 이자를 붙이는 것을 금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35-37절을 보십시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법에는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debts)을 면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참고: 신15:9)(아마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용자한 돈은 우리가 죽으면 무효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그러니 많은 유대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7년째가 가까웠을 때 재정적으로 힘든 유대인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자기들의 투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꾸어준 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조그마한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농부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유대인 선생들은 이 법을 피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이 빌릴 수 있도록 하게 하되 그 조건은 빌린 것을 갚을 수 있을 때 유대인 채권자들에게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 주면 무슨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며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눅6:34). 즉,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에게 꾸어줄 때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라는 말입니다. 꾸어주되 꾸어준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꾸어주라는 교훈입니다(Keener).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7-9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형제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은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어주되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하여 아무 것도 (꾸어) 주지 않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그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5장 43-44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자기들의 옳지 않은 사상을 붙여 유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정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박윤선). 이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요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하되 그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도 아니고 원수에게까지도 바라지 말고 돈을 꾸어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교훈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여 그에게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35절). 즉,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묵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어떤 율법교사가(25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29절)라고 여쭙었을 때 하신 말씀으로서 강도들을 만난 “어떤 사람”(30절)의 참 이웃이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요 바로 그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33-37절). 예수님의 질문과 그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어 보십시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36-3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적은 후 결론적으로 48절에 와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원수 사랑의 교훈을 말하다가 36절에 와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구절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전하신 사랑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자비(금휼)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처럼 원수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잠언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표하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이다”(인터넷).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접이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와 예배로 부르는 교회의 종소리는 우리 귀에 아주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 대문의 초인종 소리도 실은 우리 귀에 친숙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손님 대접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베품의 흐름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되도록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이 거룩한 흐름은 거기서 중단되고 맙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공손한 몸가짐으로 사람들을 반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줄 때 우리에게 흘러온 인생의 선물들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며 그리하여 마침내 최초의 근원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와 일상 속의 베품이라는 흐름을 타고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교훈 -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저희에게

행하라' - 이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데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선대해야 합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기를 좋아하며 자비를 베풀므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14절]

여러분은 “예”할 때 “예”하시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를 잘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지난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에스라 4장 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박윤선 박사님의 에스라 4장 1-3절 주석 해설을 보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공통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함께 하자고 할 때에 결단성 있는 거절 행위는 성경적입니다.” 물론 에스라 4장 3절 중심으로 묵상한 말씀에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들(1절)이 유대와 베냐민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2절)고 말하였지만 그들이 찾고 그들이 제사를 드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유일신)이 아니었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3절).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단호한 거절 행위로 말미암아 그로부터(4절)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환난과 핍박을 뻔히 당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단호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상대방에게 “아니오” 하면 여러분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 줄 아시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냥 상대방에게 “예”하기만 하면 고생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없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14절과 연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오’라는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라는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래도 제목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고 순종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 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문이란 바로 “좁은 문”(the narrow gate)과 ‘넓은 문’(the wide gate)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14절). 그리고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3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넓은 문이란 ‘큰 문’(the broad gate)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many)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그 길이 넓기(wide)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좁은 문, 즉 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few)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작은 문은 길이 좁기(narrow) 때문입니다. 여기서 ‘길이 좁다’는 말에서 “좁다”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제한돼 있다’[“restricted”(Friberg)]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제한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Friberg). 그리고 한국어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라고(14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험착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는 ‘어려움을 당하다’(experience hardship) 또는 ‘고난을 당하다’(be afflicted)라는 뜻입니다(고후1:6)(Friberg). 즉,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은가 하면 그 이유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돼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에는 고난(환난)이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왜 많은 사람들이 큰 문으로 들어가고자 넓은 길로 걸어가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그 넓은 길에는 고난과 환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길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두 문(two gates), 두 길(two ways), 두 목적지(two destinations), 그리고 두 무리의 사람들(two groups of people)입니다(MacArthur).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많은데 그들은 넓은 길로 걸어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목적지는 “멸망”(destruction)입니다(13절). 다시 말하면, 큰 문, 넓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큰) 무리들의 목적지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 작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들의 목적지는 “생명”(life)(14절), 즉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큰 무리들은 누구이며 작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적은 무리들은

누구인가입니다. 그 큰 무리들은 오늘 본문 배경을 볼 때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그 큰 무리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큰 거리”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큰 길을 말합니다(인터넷). 그 큰 길 코너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길을 걸어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넓은(큰) 길로 걸어가는 많은 무리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의 노력인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고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문은 큼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의 노력(의지)으로 각자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불교를 들 수 있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석가모니가 말한 열반에 이르는 여덟 가지 수행 방법(팔정도)을 실천(행)할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불교는 자력구원사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들이 믿는 구원은 바로 고뇌의 순환적인 연속에서부터 벗어나는 (영원히 탈출하는) “해탈”(열반)입니다(인터넷). 또 다른 예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슬람의 구원관도 자력 구원입니다. 즉, 이슬람교도(회교도)들은 코란경에 적혀 있는 계율들을 지키고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 개인의 책임인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면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에서 구원의 개념은 “개인의 영혼이 신적인 보편적 실재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힌두교도들이 믿는 신은 “브라만” 신인데 그 ‘브라만이 아트만 (인간)이다’라는 지혜를 깨달을 때, 윤회의 수레바퀴(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중생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삼계 육도의(三界六道)의 생사 세계를 그치지 아니하고 돌고 도는 일)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 되는 해탈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힌두교의 구원 사상은 “인간이 곧 신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일치되는 길은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라가 요가(raga yoga)는 욕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일치하는 길을 제시하고; 카르마 요가(Karma yoga)는 행위를 통해서 브라만과 일치하는 길을 제시하며; 즈나나 요가(Jnana yoga)는 지식을 통한 일치를 시도하고; 그리고, 박티 요가(Bhakti yoga)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신과 일치를 이루고자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힌두교의 구원관은 결국 인간의 개인적인 노력에 기초해서, 여러 가지 요가의

수련을 통해서 자신과 브라만의 일치(일치)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고자하는 자력 구원인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이들의 목적지는 결코 천국(영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적지는 지옥(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무슨 뜻입니까?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 이름(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작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무리들은 소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소수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이 소수의 무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적은 무리들은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요14:6)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제한된(restricted) 무리들이라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한된 소수의 무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개혁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제한적 구속”(Limited Redemption) 교리가 생각납니다. 여기서 “제한적 구속”이란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의 그 유명한 5대 강령 중에 세 번째 강령으로써 그 강령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적 구속”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10장 14-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양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양”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닌 양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양”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인터넷). “만일, 제한적 구속론을

반대하고 보편적 구속론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위의 성경구절과 같은 잘못된 해석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폄하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멸망당할 영혼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실상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니, 헛되게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조금이라도 헛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한적 구속론은,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죽으심은 그 죽으신 자를 위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한적 구속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는 어김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29절로 돌아가면, 이 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인터넷).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제한적 구속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가치와 능력에 어떤 제한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속에서 사랑하사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그 구원의 능력을 제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한적 구속을 믿는 우리들이 오해하여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선택된 자에게만 구속이 일어나므로 일반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노방 전도 등 전도의 열정을 식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정론과 제한적 구속을 철저히 믿는 우리 개혁신앙의 신앙인들은 이 점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인터넷).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기에(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소수임(제한돼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14절과 비슷한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23-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하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라고 어떤 사람이 던진 질문처럼 구원 받는 자는 결코 큰

우리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그 좁은(작은) 천국 문을 한 번 닫으시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주여 열어 주소서”(Sir, open the door for us)라고 부르짖으면서 문을 두드려도(25절)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3장 25절을 보면 “집 주인”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 결과 그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28절).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길은 쉽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Hagner). 그러나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걷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9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10절).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

지난 주 월요일 한 선배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그 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한국 교계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후 내린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한 진단이라 하시면서 한 3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믿음)은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불교, 유교 및 샤머니즘 등 섞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3) 지금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요 또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진단을 생각할 때 아모서 8장 11절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기갈은 먹을 것과 물이 없어 배고프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로서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가고 있기에 지금 우리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못(아니)하고 우리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딤후4:3). 그 결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스승의 거짓 교훈에 쉽게 노출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은 이단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대전에 사시는 어느 자매님에게 이 메일을 받았는데 그 분이 사랑하는 따님과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이 되시고자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자 세 번 정도 가보신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해 했던 것은 그 분이 등록한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 교육의 시작이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해 했던 이유는 주로 새신자 교육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믿음과 성경, 기도 등등 이런

기초적이면서 근본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먼저 가르칠까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가 구원과 부류인 박옥수 집단과의 명예훼손 시비로 약 4년간 법정 투쟁 끝에 2007년에 승소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전기독교연합회의 이단대책위원장이 그 대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마도 고생 끝에 최종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입니다. 그 교회 웹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올려져있었습니다: “이번 _____교회의 대법 승소는 단순히 개교회나 지역 교회의 승리가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에 박옥수의 이단성을 증명시켰으며 진리 파수가 얼마나 힘든지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에 할 수 있다는 의지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깨워 줬다. 교회는 이단과의 투쟁이 언제나 멀고도 험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다. ... 총회는 이단과의 싸움에 단호히 대처하여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인터넛).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14:6)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벧후3:18; 엡 4:13, 골 1:10, 빌3:8). 그리고 지난주일 마태복음 7장 13-14절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13절).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써야 합니다(14절; 눅13:23). 우리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고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운전하고 나오면서 차 안에서 이 찬송을 부른 후 또한 새벽기도회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불렀습니다 - 새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에 인도하여 주소서, (2절)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3절)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묵상한 마태복음 7장 13-14절에 이어서 15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은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13-14절에서 “두 문”(two gates)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두 문이란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두 동물”(two animals)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Willmington). 그 두 동물이란 바로 “양”(sheep)과 “이리”(wolves)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즉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라’(Friberg)고 말씀하시면서 “양”과 “이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두 동물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양”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하면 “순결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밀가루처럼 흰 털로 덮인, 흠하나 점하나 먼지하나 없는 순백의 양이 상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하면 “순진하다, 눈곱만큼의 악의도 그 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에게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로부터 근본적으로 떨어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인터넷).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양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양의 털을 쓰고 양처럼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양 같이 보여서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을 것(harmless)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의 털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아무 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22-3년 전 제가 대학을 떠날 때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 있었던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이단에 미혹에 넘어가 거기서 빠져 나오느라 매우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때 그 후배가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후 기독교 동아리에서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그 후배가 한 말은 처음에 그 이단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nice하게 잘 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단 사람들은 그 후배를 집까지 초청해서 아주 잘 대접을 해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는 그 교회가 속해 있었던 이단 교단 이름이 이단이 아닌 다른 교단과 이름이 같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단과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목사나 거짓 교사들이 양을 털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힘들 때에 이것저것 베풀어 주고 잘해주고 사랑해 준다면 우리는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를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wolves)이기 때문입니다(마7:15). 여러분, 이리가 어떠한 동물입니까? 성경에서 “이리”하면 귀중한 양에게 해를 입히는 잔인한 동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창세기 49장 27절을 보면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잔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을 양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양을 물어가는 짐승을 가리켜 “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가짜 목자가 바로 이리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마7:15)(인터넷). 여러분, 여러분은 참 목자와 가짜 목자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4-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 즉 참 목자이신데 참 목자는 그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와 같은 가짜 목자는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가짜 목자를 “삿꾼”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13절을 보십시오: “삿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삿꾼은 목자도 아닙니다. 그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결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한 헤칩니다. 오히려 가짜 목자는 양 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돌봅니다(겔34:2). 그리고 가짜 목자는 양 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the worthless shepherd)라고 스가랴 11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17절) 그들에게 한 말들 중 한 부분으로서 그는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 “사나운 이리”, 즉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또는 거짓 목자가 그들에게 들어올 줄을 예상하였습니다. 그 거짓 목자의 특징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목자는 양 떼를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가짜 목자를 “도둑”으로 묘사하시면서 그 거짓(가짜)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양 떼를 아끼지 않는 거짓 목자가 왜 도둑질하는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노략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노략질”이란 헬리어 단어의 의미에는 ‘강도나 사기꾼과 같이 극심하게(난폭하게) 탐욕스러운(욕심 많은)’이란 뜻이 내포돼 있습니다(Friberg). 여러분, 혹시 지난 주 인터넷 중앙일보 신문에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장폐색 증상을 6개월 동안 앓았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 상태에 있다가 지난 6월 1일 숨진 6살 난 장애아동의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인터넷)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뼈 밖에 남지 않은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말라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후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다른 신문이 매일경제에 6월 4일 날짜로 나와 있어 보았는데 그 기사 제목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나쁜 목사”였습니다(인터넷). 왜 기사 제목이 그런가 하면 그 죽은 아이가 살고 있었던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김모 목사(52살)란 사람인데 그는 선천적 뇌병변장애로 지속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한 그 죽은 6살난 장애아동을 6개월간 방치해 놓으면서까지 보육수당 1억 4000만원을 챙겨(원생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인건비 등의 명목)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딸과 백모장로(57살)가 허위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월급 명목으로 1억 1185만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에 유학 중인 딸에게까지 월급으로 118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모 목사란 사람이 “두 얼굴의 목사”였다고 합니다. 즉, “앞에선 존경 받는 목사였는지 몰라도 숨겨진 뒷모습은 꼭 그럴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10년 넘게 돌보아오면서 명성을 쌓아오던 교회 목사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두 얼굴의 목사”, “양의 탈을 쓴 나쁜 목사”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아이의 생명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거짓 목사)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마7:15).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는 하나님의 양 떼를 아끼지 않습니다(행20:29). 오히려 거짓 목사는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돈까지도 도둑질합니다(고전6:10). 그 이유는 그는 탐욕을 부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10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 우리는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과 같이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거짓 목사를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먼저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서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17절). 왜 우리가 사람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예언하셨듯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마13:22) 우리는 뱀 같이 지혜로워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및 거짓 목사,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워야 하지만 악한 데는 미련하고 또 미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합니다(마10:16). 여기서 “순결”이란 단어의 헬라어 문자적 의미는 ‘섞이지 않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오염되지 않은) 깨끗한](unmixed, pure)이란 뜻입니다(Walvoord). 즉,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둘기 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시12:6)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벧전1:22).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 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대로 초대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밀리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단의 핵심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이단을 이끌고 있는 교주들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의회장이며 합동 이단 대책 위원회 전문 강사인 진용식 목사님은 2011년 5월 27일 LA 언약교회에서 “LA 이단대책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신도수가 몇 천 명 되는 재림주가 40명이 넘는다. 통계청 통계에 860만 명이 개신교인인데 그 중 200만 명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다. 20여 년 전에는 100명 이상 되는 이단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1000명 이상 되는 대형 이단 교회가 엄청 많다. 앞으로 10~2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정통교회보다 이단 교회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터넷).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단들을 좇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요한1서 4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23절]

여러분은 “나무”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나무”하면 6월 달 맞이하여 1박 2일 기도회 첫날인 금요일(7일) 저녁 설교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날 저는 에스더 7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에스더 2장에서 7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드라마를 “나무”의 관점에서 설교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개를 달고자 한 나무에 오히려 모르드개와 그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달리므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7:10) 사실을 묵상하면서 저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드라마 작품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그 작품은 바로 저주의 나무(신21:23)에 높이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하만”과 같은 교만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임을 당하신 것일까 생각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왕궁 안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심히 사랑스러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에5:2).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이 심히 사랑스러워서 저주의 나무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심히 사랑하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마치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던 것처럼(7:10)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 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이주 동안 마태복음 7장 13-15절까지 중심으로 “두 문”과 “두 동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한다면 제목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입니다. 저는 지난 주 다시금 이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묵상한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1절)과 외식을 버려야 할 것(5절)과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6절)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바로 이 세 번째 교훈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교훈이 우리가 한 이주 동안 묵상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메시지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메시지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문인 넓은 문과 좁은 문 사이에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서 좁은 문을 택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며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판별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며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합니다(요7:24).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과 악을 판별(discern)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되 특히 우리는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13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요한일서4장 1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6-23절 중심으로 “두 나무”(two trees)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두 나무란 “좋은 나무”(a good tree)와 “못된 나무”(a bad tree)입니다. 여러분은 나무들을 볼 때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느 나무가 못된(나쁜) 나무인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을 보면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느 나무고 못된 나무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선 그 나무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자연이치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18절). 이 이치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가 열매를 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나무가 좋은 나무고 어느 나무고 못된 나무인지는 그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무엇입니까?

먼저 “못된 나무”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못된 나무”는 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넓은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외식하는(5절)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보는

자들이요(3-4절) 개와 돼지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6절)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못된 나무”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로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려고 넓은 길을 걷고 있는 많은 자들을 가리킵니다(13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못된 나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여기서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못된 나무들인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맺는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나쁜 열매는 멸망입니다(13절).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벰후2:1).

여러분, 지금도 못된 나무인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마13:22) 멸망의 넓은 길로 우리를 걷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되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들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있습니다(22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이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21, 23절). 무슨 뜻입니까? 못된 나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를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좋은 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요15:1)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4절).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란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들입니다(16절). 한 마디로 말하면, “좋은 나무”란

좋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2) 이들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힘쓰는 자들입니다(13-14절). (3) 이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21절). 여기서 이들이 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몇 가지를 예를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심판(정죄)하지 않습니다(1절). 또한 이들은 외식하지 않습니다(5절). 오히려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합니다(7-11절). 또한 이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합니다(12절). 그러면 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가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열매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17, 18, 19절)는 무엇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14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21절). (2)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의 열매 중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예수님의 이중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눅10:27)를 순종하므로 천국 생활을 합니다. (3) 저와 여러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the good fruit)란 바로 선행(good deeds)입니다. 에베소서 2장 8-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한 후에도 결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다 행한 후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눅17:10).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욥기 14장 7절을 보십시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썩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저는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교훈은 우리가 욥처럼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무를 바라보면서 욥기 14장 7절인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묵상해야겠다는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무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마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처럼(욥14:7)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롬8:39).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마태복음 7장 24-29절]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에 사시면서 지진으로 인하여 집이나 건물이 흔들리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1994년 Northridge 지진(규모 6.7) 때 저희 집 아파트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벅커 베드에 2층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 놀랐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을 보니까 20세기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10위 순위에는 미국 Northridge 지진이 순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진으로 인한 재난피해액 순위에는 Northridge 지진이 2위였습니다(440억\$) (1위는 일본 Kobe 지진으로서 재산피해 추정액이 1000억\$)(인터넷). 한 두어 가지 정보만 나눈다면 20세기 이후 가장 강력했던 지진 1위는 1960년 5월 칠레에서 났던 지진으로 규모가 9.5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와 3위는 미국 알래스카 지진(9.2 & 9.1)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1순위는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난 지진으로 사망자 숫자 추정이 25만 여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위와 3위는 중국에서 난 지진들로서 24만 2000명과 1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칼텍 연구소에 의하면 가주에서 20년 내 초대형 강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규모가 예상했던 7.8보다 훨씬 강력한 8.6 이상 초대형 지진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아마 칼텍 지진연구소 측은 지난 10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지진 패턴 분석 결과 그리 예측한 것 같은데 앞으로 20년 내 7.0도 이상 빅원이 올 확률이 80~90%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저는 언젠가 건축 설계를 하는 후배 형제에게 지진을 대비하여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그 후배의 답을 제가 기억하기로 건물을 건축할 때 기초가 지진이 날 때 같이 흔들리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 설계 법을 가리켜 “면진 설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면진 설계란 건물지반과의 사이에 절면장치를 함으로 인하여 지진의 힘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건물기초 부분에 Isolator(절연체: 소음 진동 절연 장치, 내진성(耐震性)을 높이기 위해 기초와 건물 사이에 끼워 넣는 고무, 금속, 스프링으로 조립)나 Damper [(기계의 진동을 억제하는) 제동자(制動子), 댐퍼] 등을 설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지반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건물이 함께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의

단점은 코스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멋진 설계를 생각할 때 비록 코스트가 비싸고 유지비가 비싸다 할지라도 앞으로 올 큰 지진을 대비함에 있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큰 지진 같은 우리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신앙(믿음) 기초를 든든히 하여 견고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23절까지 묵상해 오면서 “두 문”(two doors)(13-14절)과 “두 동물”(two animals)(15절)과 또한 “두 나무”(two trees)(16-23절)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13절). 그 이유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14절). 결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넓은 길로 걸어(13절) 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넓은 길은 큰 문을 향하는데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13절).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험착하여(14절)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15절).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입니다(15절). 셋째로,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17절). 결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18절). 그리고 결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18절).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느니라”(19절). 우리는 영생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사랑의 열매), 그리고 선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2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두 문”, “두 동물” 그리고 “두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7장 24-29절에서 “두 건축업자들”(two builders)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건축업자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첫 번째 건축업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업자를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지혜로운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면서 집의 주춧돌(its foundation)을 반석 위에 놓기 때문입니다(25절). 여러분, 혹시 한옥을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춧돌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 주춧돌을 다 놓으면 그 때서야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일(창방)을 하며 집을 세워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질(그레질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레질이란 주춧돌은 보통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넓고 평평한 돌을 골랐다고 해도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기에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의 면과 기둥의 면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선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질입니다. 그레질의 방법은 간단하다고 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주춧돌에 맞게 깎고 갈아 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깎고 다듬어 주춧돌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둥이 아니라 항상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질을 잘 하면 잘 할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이와 같이, 지혜로운 건축업자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습니다(24절).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석”하면 생각나는 개념은 ‘튼튼하다, 견고하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의 상징적인(figuratively) 의미는 바로 ‘견고함, 단단함’(firmness) 또는 ‘안정성’(stability)입니다(Zodhiates).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요 그 교회의 영적 주춧돌은 바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란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뜻을 주로 “반석”이란 의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뜻은 반석이라기보다 단 하나의 “돌”(isolated stone)을 의미합니다(Friberg). 그러므로 은유적으로(비유적으로)(metaphorically)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이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Friberg).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마신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였고 또한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4-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로운 건축업자는 어떻게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 즉, 지혜로운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8-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좁게는 마태복음 7장 1-23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는 마태복음 5-7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 어느 산에서 그의 제자들과 따르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가르치심)은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7:29).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그레질입니다. 영적 그레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24절)(인터넛). 다시 말하면, 영적 그레질이란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2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준이 기둥이 아니라 주초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초가 기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주초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좋은 나무”)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이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요10:7)을 믿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며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므로 교회를 반석 위에 지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교회에 부딪쳐도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25절).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두 번째 건축업자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건축업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어리석은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면서 집의 주추(its foundation)를 반석 위에 놓지 않고 모래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건축업자가 자기 집을 지으면서 집의 주추를 모래 위에 세우겠습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27절).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건축업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26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던 어리석은 사람이던 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 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부인하고 스스로 자신들을 속여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의(Jesus' righteousness)가 아니라 자기 의(self-righteousness)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바로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고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우리 삶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 (I will build my church).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세우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우리 반석이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복음성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새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1절 가사와 후렴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의 교회를 잘 짓고 잘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마태복음 8장 5-13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것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많은 때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보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보다 보이는 것에 민감하여 보이는 상황에 이끌려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것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마6:30; 8:26; 16:8; 눅12:28),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14:31),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마17:20),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눅8:25),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4:40),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막16:14),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20:27). 이 성경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작고 또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므로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믿음 또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여기신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다름 아닌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로마 군대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습니다(5절).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저는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신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을 한 2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백부장처럼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간구하여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이 가버나움에 사는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란 중풍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을 고침을 받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중풍 병으로 괴로워하는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길 그리도 원했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선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13절과 유사한 말씀인 누가복음 7장 1-10절을 봐야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로마 군대 백부장이 중풍 병으로 괴로워하되 심지어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인 자기 하인이 고침을 받길 간절히 원하였던 이유는 그 하인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하인은 유대사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누가복음 7장 5절에 가서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3절)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하게 하였는데 그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5절). 즉,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은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민족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은 자기 집에서 자기 종으로 일하는 병들어 죽게 된 하인을 가리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저자 누가가 표현한 것을 보면 그 종은 유대인이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예수님의 여덟 가지 행복의 말씀 중 다섯 번째 행복의 말씀인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란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마5:7) 사랑하는 종이 중풍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로마 군대 백부장, 자기의 종인데, 자기보다 지위보다 낮은 하인인데,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내 버려두어도 되는데 이 로마 백부장은 그 종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의 종을 선대한 것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의 종의

공황이 여겨 그를 질병과 죽음에서 구하고자 예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고쳐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황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유대인 중에게 공황을 베푼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을 생각할 때 한 20년 전에 보았던 영화 “선들러 리스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1993년 유명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이 만든 이 감독의 전쟁 휴먼 드라마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점령한 폴란드의 어느 마을에서 시류에 맞춰 자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인 독일 사업가 오스카 선들러는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는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나찌 당원이 되고 독일군에게 뇌물을 바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기회주의자였던 선들러는 유대인 회계사인 스텐과 친분을 맺으면서 냉혹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유대인들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독일군 장교에게 빼내는 사람 숫자대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스텐과 함께 구해낼 유대인들의 명단, 이른바 선들러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1100명의 유대인을 구해낸다는 이야기입니다(인터넷). 제 기억으로는 그 때 그 영화가 다 끝난 후 실제로 선들러 리스트에 포함되어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저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이미 죽은 독일사람 선들러에게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으로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독일 군대에게 점령을 당하여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다른 독일 사람이 자기들을 구해내 줬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왜 선들러 라는 독일 사람이 11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구해낸 것일까요? 성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였던 독일 사업가 선들러가 왜 마음이 비껴서 돈 벌기보다 위형부담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구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 사람들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 장로들도 알고 인정하였던 사실입니다(눅7:5). 그리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자기 종을 사랑하고 있었기에(2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 종을 고쳐 주시길 간절히 청했던 것입니다(3절).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7절을 보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I will go and heal him)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자기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로마 군대 백부장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고침을 받길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울부짖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사모하였던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7절)가 아니었습니까? 그 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질병에서 좀 나아자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사 고쳐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하다가도 건강이 악화되어가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 낙심되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신 말씀(1절)을 생각하면서 그 비유에 나오는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번거롭게 할 정도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 식구가 죽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우리는 통곡하며 슬피 운적도 있지 않으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넓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좀 아이러니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명심해야 할 것 한 3 가지가 있습니다:

- (1)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해야지 기도의 내용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우리는 기도할 때 마땅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을 극복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2)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눈으로 보는 데로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 함이로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랑하는 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 보다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보이는 상황에 이끌림을 받아 기도할 때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황에 좋아지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 감사하지만 상황에 안 좋아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낙심 속에서 불안해하고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3)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사랑하는 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그 사람이 사는 것인지 죽는 것인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다”라는 말씀은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을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7절) 그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8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8절과 유사한 누가복음 7장 6-7절을 보면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보낸 벗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말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말한 것인지가 아니고 그 말한 내용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마8:8상). 무슨 말입니까?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John MacArthur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로마 군대 백부장은 유대인의 전통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의식적으로 더럽히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자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실까봐 그리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엔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자기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만한 자격(worthy)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한국 성경에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영어 NIV 성경에는 “I do not deserve …”(나는 … 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헬라어를 보면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I do not fit) 또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I am not worthy)라는 뜻입니다(Friberg). 실제로 누가복음 7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말한 자격도 안 된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나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자기는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저는 이 백부장의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 세 번째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란 말씀이 생각납니다(마5:5).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백부장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즉,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마8:8). 그는 감히 예수님을 친히 대면할 수 없는 낮은 자로 자칭했습니다(눅7:7)(박윤선).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제 자신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족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 가정에 가장이 되게 하셨고, 한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하셨는가 라고 고민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때 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인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자격도 부족하고 이것저것 다 부족해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길 기원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한 둘째 내용은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시면 자기의 하인이 낫겠다는 말입니다(마8:8b).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7절)는 기도 응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눅7:6) 다만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죽을병에서 나올 줄 믿었습니다(7절).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는 놀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놀라셨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병에서 나올 줄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적인 말씀아래 자기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यो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도 자기 위에 천부장이란 더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있지만 또한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아래 군사가 100명이 있어 그들에게 명령만 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하고자 한 핵심 내용은 자기는 예수님께서 명령(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것은 곧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죽어가는 병에서 고침을 받을 줄 확신하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확신과 믿음대로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13절).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적어도 한번은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고통당할 때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불붙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랑하는 사람의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되(약5:16)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그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기보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사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기도를 응답 받아 사랑하는 사람이 치유를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또는 삶을 연장 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숨을 거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저의 첫째 아기 주영입니다. 그녀는 결국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고 아기가 우는 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결국에는 죽은 것입니다. 그 때 비록 통곡을 하였지만 저희 부부는 아기의 죽음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하였습니다. 그 분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벅찬 가슴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 장인 어르신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한 3년 전 안식 월 때 장인, 장모님 덕에 한 1주일 머무는 동안 두 분으로 모시고 병원에 가서 점검을 하였는데 폐암이라는 진단과 6개월 정도 밖에 못사실 것이라고 담당의사에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침대에 누워계신 장인 어르신에게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다가 제가 장인 어르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 때 장인 어르신은 두렵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분은 찬양하고 말씀 읽고 특히 기도할 때 제가 주님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힘차게 “아멘”하셨습니다. 지금도 종종 장모님이 전화 오셔서 전화로 장인 어르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때 동일한 기도를 드리면 장인 어르신은 “아멘”하십니다. 지금 장인 어르신은 폐암 진단과 6개월 밖에 못살 것이라 라는 담당의사의 말을 직접 들으시고도 이렇게 3년이란 세월을 연장 받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되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 응답의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8절]

여러분, 여러분은 고통의 문제(The Problem of Pain)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경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고통"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큰 고통"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큰 고통을 통하여 결국은 회개 기도케 하시므로 말미암아(2-3, 5절)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리 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17절). C. S. Lewis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를 인간의 항구적인(지속적인)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은 고통을 통하여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고통이 주는 일차적인 영적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 인간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모든 주관적인 의지를 꺾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여야 할 더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아를 완전히 양도하는 일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이 C. S. Lewis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동의하는 점은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지속적인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저자 마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some men)이라고 말하였는데 마가복음 2장 3절에 가서 보면 마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되 그 사람들 중 “네 사람”들(four of them)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네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저자 마태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 누가는 그 네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는 그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지만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9절). 여기서 “우리 때문에”란 말은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즉, 그 네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막2:1)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눅5:18)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막2:2). 그 때 그 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 누가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우리 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유대인들이 살던 집은 어떤 지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처럼 네 사람들은 그 지붕을 벗겨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내려 보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집 지붕을 놓을 때 먼저 대들보를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작은 나무토막들을 촘촘히 올려놓고 다시 뒤편인 가시나무를 두텁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반죽을 해서 가시나무 위에 덮은 뒤에 다시 흙으로 평평하게 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손으로 뜯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막2:5; 눅5:20). 아마도 이 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은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 5장17절에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온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 것을 믿었기에(눅5:17)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더라는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이 신유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듯이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네 사람들처럼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신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흥사 목사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 주실 줄을 믿고 있는 것인가?’ 두 질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의 초점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두 번째 질문의 초점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을 간절히 원하는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고쳐지는 것인지 안 고쳐지는 것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고쳐지던지 안 고쳐지던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2)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1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였는데(2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란 무엇일까요? 짐작 کن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도”(the word)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됩니다(Black). 성경 마가복음 1장 14-15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네 사람들은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분이 생각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개념을 설명하는 성경구절이 누가복음 10장 9절에 나와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한 성경 누가복음 9장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는 병자들을 고침을 받아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 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눅5:17)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심을 믿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송축하면서 그 왕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시사 온전케 하실 줄 우리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살아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했듯이 이 네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막2:1)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지만(눅5:18)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막2:2).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기와를 벗기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우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눅5:19, 막2:4). 그들은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 것과(눅5:17)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막1:14-15, 2:2, 눅9:2, 10:9) 그 믿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집의 지붕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명히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만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을 결코 죽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즉, 이 네 사람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길 기원합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나음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 동네”란 “가버나움”입니다(막2:1).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마가는 “다시”(again)란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8장 5-13절에서 목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가버나움에서 중풍 병으로 죽어가는 로마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치유하여 낫게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곳에서 또 다른 중풍병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만남을 생각할 때 왠지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과연 중풍 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풍병자들이 많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중풍 병이란 우리가 좀 알고 있듯이 그 병은 뇌 질환입니다. 즉, 뇌의 혈관에 이상이 생기거나 터져서 뇌의 기능 일부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몸의 마비가 오는 질병입니다(인터넷). 우리는 주로 이 질병을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몸의 마비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뇌출혈/뇌경색의 원인은 3가지라고 합니다: (1)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뇌혈관이 막힌 경우, (2)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진 경우 그리고 (3) 신체 다른 부위에서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뇌혈관을 막은 경우(인터넷). 이 3가지 원인 중 왠지 저는 두 번째 원인인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혈관이 터진 경우”가 마음에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분이 고혈압과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두 번이나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병 원인은 그런 의학적인 이유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이유란 무엇입니까? 바로 “네 죄”(you sins)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병환자를 치유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을 때 즉시 그 나병환자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마8:3). 그리고 우리가 이미 목상한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 병을 고치실 때에는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13절). 또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15절).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16절).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일어나 걸어가라”(Get up and walk)고도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중풍병자의 병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의 병인 중풍 병을 고치시기 이전에 그 중풍 병의 원인인 죄를 사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는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았다고 말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어떤 질병들은 우리의 죄와 연관돼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8절)에 그를 성전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14절). 무슨 말씀입니까?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은 그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의 궁극적 원인은 죄악이다. 범죄가 본래 없었더라면 이 세상에 질병이 없었을 것이다. 어떤 질병에 있어서는 범죄가 그 직접 원인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범죄마다가 직접으로 신병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동일한 범죄를 쌓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박윤선). 물론 모든 범죄마다 직접적으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해서 죄를 쌓으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엔 쓴 열매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까 아니면 쓴 뿌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쓴 열매를 제거하고 또 제거한다 할지라도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쓴 열매는 또 맺고 또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안에 쓴 뿌리가 나면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죄의 악한 영향력은 마치 전염병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합니다. 그리할 때 자동적으로 쓴 열매도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 나오는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쓴 뿌리란 바로 그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쓴 열매는 바로 중풍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체 메고 온 그 네 사람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마9:2).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5절) 그 “...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6절). 그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7절)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막2:12)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눅5:25)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 그의 병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풍병자는 온전케 되어서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마9:3; 막2:6)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즉, 예수님께서서 가버나움의 집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을 때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마음속으로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21절). 곧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 밖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신데 나사렛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니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막2:8)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마9:4).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하도다고 생각한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예수님 보시기엔 악한 생각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악하기에 그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34-35절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마음에 가득이 쌓은 악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또한 악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9:5-6a, 참고: 막 2:9-10a, 눅5:23-24a).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죄 사함의 권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한 말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무지함과 불신앙에서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마음으로 정죄)하였던 것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마9:6)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절)고 말씀하시고 그를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앙,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6절)고 말씀하셨고 그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 그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7절, 막2:12, 눅5:25). 그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8절, 마가복음 2장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마9:8), “...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막2:12),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눅5:26). 결국 그 가버나움 집에 모였던 많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능과 병 고치시는 권능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O. J. Gibson은 “Survey in Basic Christianity”란 책에서 자기 점검 목록 7개 질문을 던집니다(인터넷): (1) 당신은 항상 비이기적이었습니까? (2) 당신은 항상 시기와 탐심에서 자유로웠습니까? (3) 당신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틀림없이 다 행했습니까? (4) 당신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까? (5) 당신은 항상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6)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였습니까? (7) 당신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였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들 질문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그 대답이 "아니요(No)"라면 성경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에 대해 유죄가 됩니다(약 2:10).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단 한 번 더럽혀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십니다. 우리가 질병이란 고통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므로 죄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마태복음 9장 9-13절]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세월이 장사 없다 는 말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기 저기 몸이 아프고 심지어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하며 고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몸이 건강한데 일부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생로병사”란 말이 생각납니다.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아프고 병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만 건강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프고 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입술로도 자주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위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웬지 점점 더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 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병(mental disease) 혹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증으로 망상과 환각 상태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울장애로 또한 어떤 사람은 조울증으로 등등 이러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과 더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그 영혼이 범사에 잘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할 때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3서 1장 2절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2-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시고 또한 그의 병을 고쳐주신 후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막2:14), 또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마9:9, 막2:14, 눅5:27). 예수님께서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에게 “나를 좃으라(따르라)”(Follow me)고 말씀하셨을 때(마9:9; 막2:14; 눅5:27)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앉아 있던 세관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9:9; 막2:14). 따르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눅5:28). 그리고 나서 마태(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는데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집에 가서서 많은 세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사람들(“죄인들”) (막2:15)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눅5:29; 마9:10) 음식을 잡수셨습니다(마9:10).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11절).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눅5:30). 그 때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2-13; 막2:17). 마가복음 2장 17절과 누가복음 5장 31-32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2-13절과 다른 점들이 한 2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마9:13). 또 하나 다른 점은 누가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건강한 자”는 누구이고 “병든 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건강한 자”란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의인”(the righteous)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의인”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자기 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행한 종교 예식은 무엇이였습니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없게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그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눅18:11-12).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였던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멸시하고 있었기에 자기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13절).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가 죄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13절).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를 드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14절).

여러분, 과연 수없이 드리는 바리새인들의 제사가 자신들의 죄를 없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무수한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제사들이 자신들의 죄를 없게 한다고 믿었고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선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뜻은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므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스스로 분리하여 살면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셔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마9:11)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긍휼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태와 같이 그들이 죄인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선 자기 뜻과 자기 의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 긍휼이 여기신 주님처럼 그들 또한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긍휼이 여길 수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배우고자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9:12, 13).

여러분 생각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건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자기 의를 추구하였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보시기엔 진정한 의인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여러분 보시기에 선(착한 일?)을 행하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요 의인입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선행으로 구원 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이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병든 자”들이요 진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신 것입니다”(눅5:32).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의 서기관들)이 말한 마태와 더불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였던 많은 세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29절).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당시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사회에서 제일 괘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걷었던 돈은 부분적으로 자주 개인 이득을 위하여 쓰였던 것이었고(참고: 눅19:8) 또 다른 부분적으로는 로마에게 받쳐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둑놈들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MacArthur).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에서는 세리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천하였기에 세리의 집과는 혼인도 안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에서도 역시 그러한 관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무엇일 제일 나쁜 짐승이냐?” 할 때에 데오크리투스(Theocritus)란 사람은 대답하기를 “산에서는 곰과 사자요, 시가(시장)에서는 세리니라”고 했다고 합니다(박윤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마9:9). 그 때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좇았습니다(눅6:28). 이것은 마태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고 있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으니 이 얼마나 마태는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였던 것입니다(29절).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마태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제일 괘시를 받는 세리로서 바리새인들도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던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자기가 죄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인 됨을 알고 있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마9:9).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불러 회개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서는 마태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자,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께서서는 마태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는 세리들을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이 그리 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눅18:9). 그 이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마9:13).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였습니다(14절).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교만하여 결코 죄인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13절)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인 마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였습니다(눅18:14). 그는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죄인을 알았습니다(13절). 이러한 자를 부르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든 자들에게는 참된 의사인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진정으로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병든 자요 죄인은 바로 자기의 노력과 행함으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마태나 세리들은 “병든 자”요 “죄인”일지라도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건강한 자요 의인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세리와 같은 자(눅18:13)를 부르시사 건강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십니다(롬10:13).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구원을 받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태복음 9장 18-26절]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믿음 하는데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주의 신학계의 영적 거장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그의 책 “견고한 크리스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어에는 “믿고 의지하며 헌신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에 헌신해야 한다:

(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호4:6).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임하였습니다(암8:11).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고 있습니다(딤후4:3-4).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잘 달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목소리)을 듣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히12:2). 지금 우리의 눈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보다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고 있기보다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순간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장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안에는 장님이 장님들을 인도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시141:8).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데서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약1:22).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마7:24).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26절을 보면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한 관리”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한 관리”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에는 그저 “한 관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마가복음 5장 22절이나 누가복음 8장 41절을 보면 이 “한 관리”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한 율법과 선지서를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장소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멤버로서 그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Myers).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발아래 엎드리어”(막5:22; 눅8:41) 절하며(마9:18)이렇게 예수님께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9:18).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막5:23) 또는 죽어갑니다(눅8:4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1절 하반절부터 4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이 세 복음서에 세 구절들을 종합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지금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간곡히 구한 것은 하나 밖에 없는 12살 된 자기 외동딸(눅8:42, 막5:42)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자기 집에 오셔서 그녀 위에 손을 얹으사 그녀를 치유하사 살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이로의 이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마9:19)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막5:24).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막5:35)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막5:35) 또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눅8:49)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눅8:50).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 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기 딸도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그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리할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또한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생각할 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 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요11:21-22). 그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23절).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24절). 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25-26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27절).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믿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아이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눅8:50) 후 아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마9:23), 즉 사람들이 떠드는 것과 모든 사람이 그 아이로의 딸을 위하여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습니다(막5:38; 눅8:52).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눅8:52)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9:24). 그 때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24절). 왜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아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눅8:53).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무리를 다 내보내신 후(마9:25)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막5:40; 눅8:51).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아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꿈”, 즉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5:41). 그 때 그 소녀의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곧 일어나서(눅8:55) 걸었습니다(막5:42). 결국 예수님께서서 회당장 아이로에게 하신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개역개정), 즉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현대인성경)(눅8:50)라는 말씀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그 12살 난 소녀를 보고 그 부모만 놀랐을 뿐만 아니라(눅8:56)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막5:42).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후(눅8:56)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5:43). 이 죽었던 회당장 아이로의 외동딸을 예수님께서서 다시 살리신 일에 대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습니다(마9:26).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관리인 회당장 아이로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십시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예수님께서 한 관리인 야이로라는 사람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12 살 난 외동딸을 살리시고자 그와 함께 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마9:19)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막5:24)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밀었냐면 누가복음 8장 42절을 보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거의 질식시킬 정도로 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Vine).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누가복음 12장 1절 상반절을 봐야 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 .” 그와중에 무리 중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겹옷가를 만진 것입니다(마9:20). 왜 그녀가 그리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겹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치유 받을 것이다(21절) 생각했기 때문입니다(막5:28). 좀 더 이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여인이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두 복음서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물질도 많은 의사들에게 내느라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막5:26). 그런데 자기의 질병인 혈루증을 고치고자 그리도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막5:26) 고침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눅8:43)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막5:26). 이 두 복음서의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외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bleeding, a hemorrhage)이란 질병입니다. 현대 백과사전적 의미는 혈루증이란 헬라어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게 되는데, 이 병은 월경과 무관하게 불규칙하게 출혈됩니다. 이 병에는 기능성자궁출혈과 기질적 자궁출혈(염증, 패혈증, 종양, 백혈병 등에 의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기질적 자궁출혈 중에서 악성이 암이고 장기간 출혈되는 것이 증식성 자궁내막염으로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그 여인에게 육신적으로 절망적인면도 있었지만 심적으로도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혈루병 환자가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한 것으로 여겼고, 그녀가 사용했던 침상, 옷, 좌석 모두 다 부정하게 여겼습니다(레 15:19-20). 유출병 환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했고, 목기(木器)는 씻어야 했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하면 옷을 빨고, 물로 온몸을 씻어도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심지어 그 부인과 동침한 남편도 일주일이나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이 병이 들면 시집도 못 가고, 결혼한 여자면 대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여자는 성전에 출입하는 것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일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종교에서까지 버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인터뷰).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12년 동안이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차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의 집으로 가실 때에 함께 따라가고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끼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막5:27). 그녀가 그러한 이유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28절).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막3:10).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십시오: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 달라고 간청한 이유는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겔옷 가를 만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멎었고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혈루증이란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자신의 몸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30절).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는 말은 그는 자기에게 누군가가 손을 댄 자가 있는 것을 아셨다는 말입니다(눅8:46). 그런데 그 때 우리들은 다 아니라 하고 부인하였습니다(45절). 그 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45절). 마가복음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댄 자가 정확히 누구이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이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눅8:47) 예수님께 나아와 옆드리어 모든 사실을 솔직히 말하였습니다(told him the whole truth)(막5:33). 즉,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대 이유와 자기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눅8:47).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 할지어다)”(마9:22; 눅8:48; 막5:34).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서 ‘네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고 말씀하셔도 되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자도 예수님께 자기 마음에 예수님의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1절). 왜 이렇게 성경은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여인의 질병인 혈루증이 그 여인의 죄와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9장에서 목상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6절)고 명하시기 전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2절) 결국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그의 영적인 병인 죄를 먼저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자도 죄의 문제로 질병을 앓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후“(마9:22; 눅8:48)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막5:34)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마9:22). 즉,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눅8:44). 즉, 그녀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막5:29).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디.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자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thought)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에게 “네 믿음이(your faith) 너를 낫게 하였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병이 치유될 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녀를 낫게 한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대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믿음이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믿는 믿음이라기보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뜻은 병 낫는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 병 낫는 것이면 낫게 해주시고 병 낫기보다 다른 뜻이 있으시면 그 뜻이 선한 줄 믿고 그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병 낫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병 낫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중 30대 후반 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새벽기도회 때 나눴지만 약 10여 년 전에 화상을 입은 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벌써 큰 수술을 세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한 2주전 카카오톡으로 기도부탁을 하였는데 불교 신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주일 1부 예배 가기로 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때 저는 그 자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매의 간절한 기원을 아시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 후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매의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어머니의 구원을 얻어 영생만을 얻을 수 있다면 ...” 그런데 지난주일 그 자매의 어머니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후 따님의 친한 친구와 예배를 함께 드리신 후 식사도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그 자매의 친한 친구가 저에게 이 메일을 했는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란 그 어머니가 그냥 딸이 소원하니까 교회에 가신게 아니고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그 신앙을 버린다는 게 십여 년간 엄청난 고통이었다고 말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기독교 TV를 보며 설교 내용들이 좋았고 일주일 전부터 (교회) 가야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선불리 따님에게 말을 못하겠어서 망설이던 차 따님이 속해 있는 부서의 담당목사님이 오셔서 결단하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을 통하셔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이 참 귀한 가치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혹여나 회개하지 않은 죄 사함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나요? 주님의 죄 사함의 능력과 병 치유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였던 그 여인처럼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결론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요 긍휼이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비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대접하며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고 주님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도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으로 걸으며 또한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가는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응답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더욱더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